

목 차

■ 개회사1
■ 축 사5
■ 발 제 1	재난구호(강원 고성 산불 이재민) 활동 사례 11
	고광선 실장(前 강원도 고성군 주민복지실)
■ 발 제 2	산불한테 빼앗긴 것들, 산불한테 얻어야 할 것들 43
	손윤권 박사(작가, 문학박사)
■ 발 제 3	재난지역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63
	왕재선 교수(강원대학교 교수)
■ 발 제 4	강원 산불재난 지역회복을 위한 희망 포레스트 73
	송성근 매니저(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모금팀)
■ 종합토론	오재호 대표(나노웨더), 김정희 사무총장(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김경남 선임연구위원(강원연구원), 백민호 교수(강원대학교), 라정일 부소장(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개 회 사

개 회 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 김 정 희

안녕하십니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입니다.

강원 산불 2주기를 맞아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가 주관하는 제3회 강원 산불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주신 강원연구원, 강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영상축사로 함께하신 이양수 국회의원,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님 및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고광선 전 고성군청 주민복지실장님, 손윤권 박사님, 강원대학교 왕재선 교수님, 전국재해구호협회 모금팀 송성근 매니저님, 나노웨더 오재호 대표님, 강원연구원 김경남 실장님, 강원대학교 백민호 교수님, 재난안전연구소 라정일 부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협회는 60년간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쳐오며, 개인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구호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대형 재난 이후 지역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올해 제3회 강원 산불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강원도에 발생한 산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전국 소방력 총동원, 민첩하고 유기적인 범정부 지원체계 가동으로 대형 재난 대응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간구호지원기관과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컸으며, 재난 초기 대응 이후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도 빨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난 발생 이후 지역과 주민들이 재난 발생 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고민이 부족했으며, 재난 이후 중장기 재난복지, 지역회복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재난피해자를 돕는 우리 협회와 재난 관리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이 자리에서 산불 재난 2주기를 맞아 지역회복과 재해구호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 논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앞으로도 뜻밖의 재난으로 어려움에 부딪친 이웃들을 위해 재난에서 희망으로 이어가는 다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축 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양 수

안녕하십니까?

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 이양수입니다.

제3회 강원 산불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주신 전국재해구호협회 송필호 회장님과 강원연구원, 강원대학교를 비롯해 발표자 및 패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고, 지역회복을 위한 장기 재해구호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고 계십니다.

2019년 강원도 대형 산불 재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원 덕분에 피해 주민과 지역사회는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에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로 3회를 맞이한 세미나가 지역 회복과 재난 대응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국회 차원에서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나무에 피어난 봄날의 새싹처럼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일상에도 희망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강원도의회 의장 궤도영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 궤도영 입니다.

먼저 오늘 강원 대형 산불 2주기를 맞아 강원산불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정희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교훈, 재난지역 회복을 위한 구호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61년 수해대책위원회를 시작으로 60년간 재난피해자 구호에 힘써 오신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산불발생 시 지역과 협력하여 민간영역의 최일선에서 피해지역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에 강원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는 산불재난은 물론 지리적 특성으로 매년 풍수해, 대설 등의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회복을 위한 중장기 재해구호 활동 및 재해구호 정책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 산불재난 피해지역의 회복방안 모색과 실천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강원산불 재난사례(2019)를
통한 지역회복의 교훈**
-재난구호(강원 고성 산불 이재민) 활동사례-

1

■ 前 강원도 고성군 주민복지실장 고 광 선



2019. 4. 4 ~ 4. 5
재난구호(강원,고성 산불 이재민)활동사례

Contents

- I 현 황
- II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 III 구호품 및 성금 지원
- IV 자원봉사 활동
- V 이재민 구호 개선과제



01 강원도 고성군 일반현황



- 면적**
 ○ 664.55km² / 북고성 858.65km²
 ※ 해안선길이 92.23km (바다면적 25,168km²)
- 인구**
 ○ 14,546세대 26,757명 (2020. 12. 31)
- 행정구역**
 ○ 2읍 3면, 128개리 561반
 ※ 북고성 1읍 23개리
- 재정규모**
 ○ 예산규모 3,784억원
 ※ 재정자립도 8.1% /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 14,144천원
- 행정조직**
 ○ 3실, 10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5개 읍·면
 ※ 공무원 수 (534명)

02 산불개요 및 피해 현황

☞ 산불발화 : 2019. 4. 4 (목) 19:17 - 4. 5 (금) 18:05 / 풍속 35.6m/s

- ◎ 장 소 :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94-4 일원
- ◎ 피해지역 : 8개 마을 [인흥 1, 2, 3리 / 성천리 / 원암리 / 용촌 1, 2리 / 봉포리]
- ◎ 원 인 : 한전 특고압 전선과 개폐기 연결 리드선 절단 (국과수 발표 4.18)



◎ 피해현황

- ◎ 이재민 : 506세대 1,190명(남 610, 여 580명) * 세입자 127세대 218명(남 129, 여 89)
- ◎ 주택피해 : 496세대 485동(전파 347, 반파 54, 부분 84)
- ◎ 산림피해 : 929.92ha(국유림 45.36, 공유림 58.96, 사유림 825.6) / 산림청 6.22ha
- ◎ 재산피해 : 2,071억원 / 자체조사



<NDMS 집계결과> : 610.11억원 / 사유시설 224.99억원, 공공시설 385.12억원

양강지풍 (襄杆之風)

- ◎ 강원도 양양군-간성군 사이에서 부는 빠르고 고온건조한 강풍
- ◎ 襄杆之風은 1633년 이식의 『수성지』에 襄江之風은 1751년(영조 27년)조선 후기 이증환의 『객리지』에 소개





03 특별재난지역 선포



04 이재민 조사

- ☞ 조사기간 : 2019. 4. 5 (금)
- 조사자 : 10개 부서 (조사책임자 : 실과장)
- 조사대상 : 산불피해마을 8개리 / 자연부락 9개소



TIP

- ◎ 이재민 사전 신고 접수 후, 신고 중심으로 조사 진행
- ◎ 조사 서식 통일 및 사전준비 : 매년 복구지침에 수록

복구현황 [2020. 12. 31 현재]

주택 및 부속사

(단위 : 동)

구분	대상	복구추진						추진률
		계	열계중	공사중	준공	매입	포기	
계	528	396	57	68	171	20	80	75%
주택	306	241	20	44	114	20	43	78.76%
부속사	222	155	37	24	57	-	37	69.82%

산림복구

(단위 : ha)

총 피해면적	벌채			조림면적 (경관수 등)	비고
	대상	면적	%		
929.92	516	516	100	280	미탑나무, 만수유, 활벗나무, 소나무 등

복구현황 [2020. 1. 20 현재]

긴급벌채 → 경관수 조림





01 임시대피소 운영

- ◎ 기간 : 2019. 4. 4 (목) 21:00 ~ 4. 5 (금) 10:00
- ◎ 장소 : 6개소 (아야진초교 · 동광중 · 고성고 체육관, 고성종합체육관 등)
 - ↳ ※ 4. 4 (목) 21:23 천진초교체육관 1차 대피 후, 위급사황 발생으로 22:25 아야진초교로 이동명령 조치
- ◎ 대피인원 : 2,280명 / 4. 5 (금) 05:30기준
 - 대상자 : 주민, 요양시설 입소자, 콘도·펜션 관광객, 군인 등
- ◎ 조치사항
 - 담요 등 응급구호세트, 생수, 빵, 두유 등 지급
 - 요양원 입소자 인근 요양시설 이동 조치
 - ※ 4. 5 (금) 조식 조치 : 주먹밥, 김밥 등

17

02 임시대피소 운영

- ◎ 기간 : 2019. 4. 5 (금) 10:00 ~ 2019. 6. 17 (월) 17:00
- ◎ 장소 : 10개소(학교 체육관 3, 마을회관 7)
 - 학교 : 천진초교, 아야진초교, 동광중
 - 마을회관 : 인흥1,2,3리, 성천, 원암, 용촌1,2리
 - ※ 동광중 : 2019. 4. 9까지
 - ※ 아야진초교 : 2019. 4. 10까지
- ◎ 수용인원 : 456명 / 최초 입소
 - ※ 수용인원 외 이재민 : 사회복지시설, 친·인척, 콘도 및 연수원 이용
 - ※ 천진초교 체육관 및 마을회관은 임시주거시설로 계속 이용



◎ 조치사항

- 대상자 : 가족단위 2~4인용 텐트(칸막이) 설치
- 급 식 : 대한적십자사, KT&G·원불교, 전국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밥차
 - ※ 마을회관은 밥, 반찬 배달 / 도시락 포함
- 근무자 배치 : 대피소별 2명 / 24시간 교대 근무
 - ※ 천진대피소 : 간호 인력배치 2명
- 응급 구호셋트 추가 지급, 샤워시설, 의류-이불(새옷, 중고옷 등) 보온 매트, 전기장판 등 지급
- 재해구호협회 등에서 세탁차량 운영 : 2대
- 관내 콘도에서 목욕 이용권 후원으로 이재민에게 배부
- 자원봉사 단체별 의료, 심리치료, 음료·차 봉사
- 시설별 TV, 와이파이 및 충전기 제공, 상담소 운영



TIP

- ◎ 임시대피소 및 주거시설 운영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사전예산편성
- ※ 임시주거시설 확보 시설별 수용계획 수립

19

03 임시주거시설 운영

- ◎ 기 간 : 2019. 4. 8 (월) 18:00~10.17 (목) 15:00 / 6개월 10일간
- ◎ 시 설 : 19개소 (학교, 연수원, 민간 콘도)
- ◎ 수용인원 : 748명 / 공공 연수원 및 민간 콘도 : 259실 609명
 - 학교 : 1개소 (천진초교 체육관/ 지붕 있는 칸막이텐트)
 - 연수원 : 6개소
 - 민간 콘도 : 5개소
 - 마을회관 : 7개소



◎ 급 식 : 밥차 및 도시락, 매식 등

- 밥차 운영

- KT&G · 원불교,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 쌀 및 기본 부식 제공, 자체 준비
- 대한적십자사 : 쌀 및 반찬 매입 지원 / 2019. 4.28 종료

- ※ 마을회관 및 일부 연수시설 이재민 도시락배달 / 밥차에서 준비
- ※ 마을회관 쌀 및 부식지원 자체식사 / 대형 밥솥 지원

◎ 매 식 : 6개 공공 · 민간시설 / 1식 단가 4,500원 ~ 8,000원

- ※ 2019.6.16 매식 종료, 쌀 지급 후 자체식사 조치



급식차 지원 일정





- ◎ 민간시설(콘도) 사용료 지급 : 5개 시설
 - 4.30까지 무료 제공
 - 5.1부터 유료 : 1실당 1일 5만원
- ※ 무료 제공분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기부자로 기부금 처리
- ◎ 관리책임자 지정 : 시설별 2명 / 초기 24시간 교대, 중반기 08:00~20:00
- ◎ 셔틀버스 운행 : 시설별-마을별 1일 5회 / 7번 국도, 속초
- ◎ 생수, 간식 제공, 속옷, 양말, 겹옷 등 생필품 수시 배부
- ※ 옷, 신발 등 생필품 배부를 위한 바자회(장터) 8회 운영

TIP

◎ 이재민 구호를 위한 주민복지실 직원 '단체 카톡방' 운영

-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간판 및 운영지침 게시
- ◎ 의료지원 봉사 및 심리치료 : 보건소, 봉사단체, 대한적십자사
 - 롤니 및 안경 지원
 - 긴급 의료 급여책정 : 263가구, 627명 / 6개월
- ◎ 긴급생계지원 : 13명, 943만원
- ◎ 구호비 지급 및 후원 상품권 지급
 - 구호비 1일 1인 8,000원/ 총 1,196명 497백만원 지급
 - 상품권 : 가구당 55만원, 가구원당 10만원
- ※ 주거비 별도 지급 : 564세대 5,029백만원
- ◎ 정보제공 : 복구에 관한 정보 안내 및 법률상담 / 시설별 운영
- ◎ 이동화장실 설치 : 체육관, 마을회관 등 9개소



세탁차/이동화장실/샤워부스 제공

- ▷ 4.5 ~ 6.18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세탁차 2대(고성 천진초, 서울시연수원)
- ▷ 4.8 ~ 6.18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이동화장실 7대(고성 천진초 등)
- ▷ 4.8 ~ 6.27 전국재해구호협회 샤워부스 2대(고성 인흥3리 마을회관)



구호비 (급식+숙박) 예산집행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사전예산편성)	집행액	잔액	용도
계	530	521	9	-
수용비	35	2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소 텐트 임차비 ○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품 배부안내 현수막 등 안내물 ○ 구호품 수령·배부 지게차 임차 등
구호비	495	49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구호봉사자 급식 ○ 이재민 공공·민간시설 매식비 ○ 민간 임시주거시설(콘도) 숙박료

※ 예산 : 재해구호기금

04 임시주거시설 입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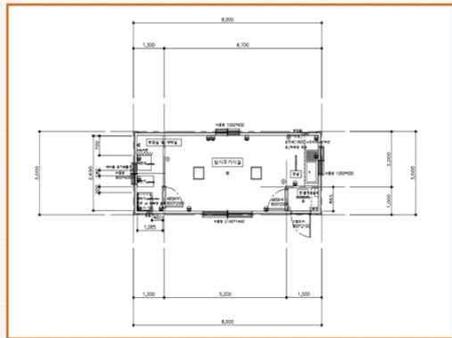
수요조사 [2019.4.10 ~ 2019.4.16]

조사대상	계	임대주택	조립식주택	불필요	비고
413세대	413세대	112	236	65	최초



평면도 및 집단설치 전경 [2019.6.20]

◎ 평면도



◎ 용촌1리 집단 설치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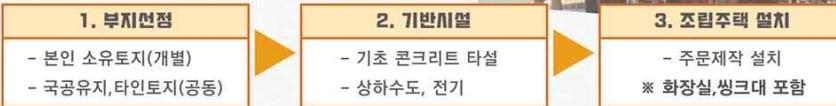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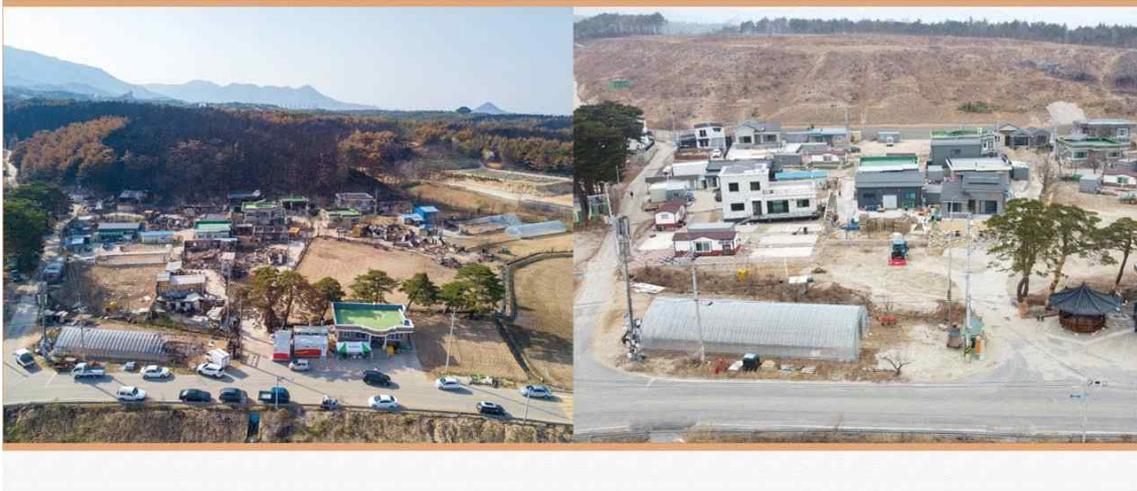
- ◎ 지원 규격 : 24㎡(7.3평)
- ◎ 지원 기준 : 세대당 1개동 / 4인가구 1동 추가
- ◎ 1동당 설치비 : 30백만원(기반시설 5백만, 조립주택 25백만)

※ 에어컨 포함, 난방 전기 온수보일러

◎ 설치



- ◎ 조립주택 부대시설 후원(지원)
 - 수량 : 285동 (249세대, 해비타트 10동 포함)
 - 부대시설 : 캐노피, 현관 방충망 및 체크도어, 소화기
 - 소요예산 : 후원(주택금융공사, 한국교회봉사단)



주택 복구현장 [2020.1.20 현재]

◎ 화재현장



◎ 복구현장



주택 복구현장 [2020.1.20 현재]

◎ 화재현장



◎ 복구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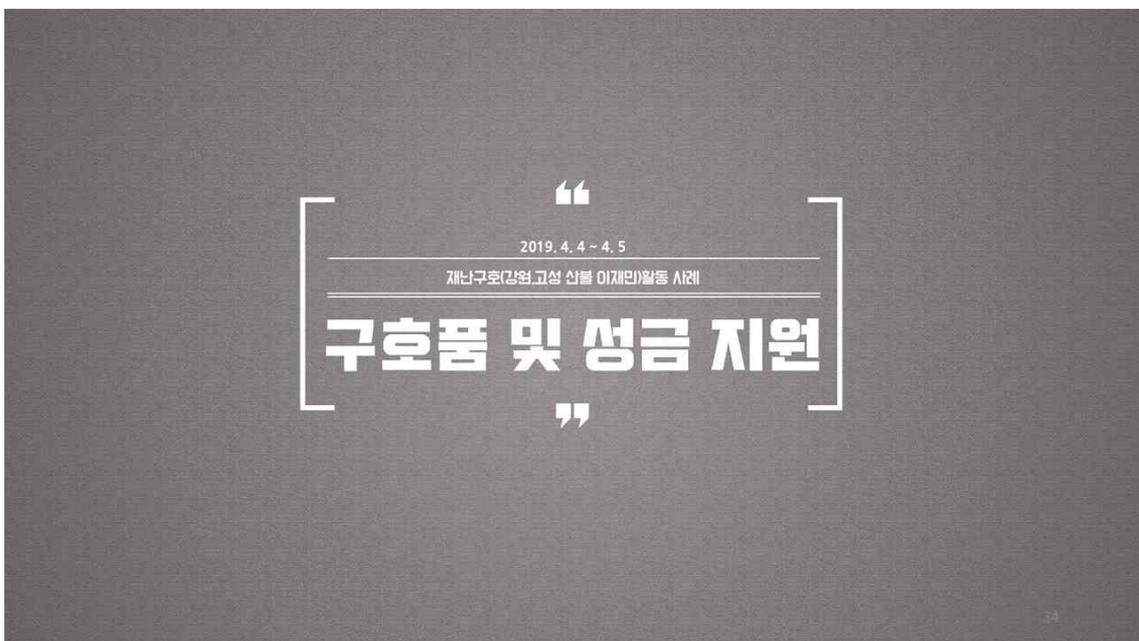
전세 임대주택 지원

- ◎ 지원 규격 : 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 전용 85㎡(1인가구 60㎡) 이하
- ◎ 지원 액 : 임대보증금 9천만원 까지 (LH지원, 초과분 본인 부담)
- ◎ 지원기간 : 2년
- ◎ 지원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 본부

최종 입주내역 [피해 8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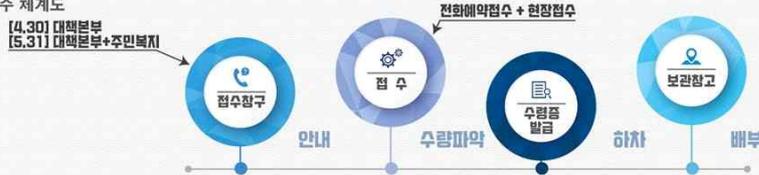
계		임대주택		조립주택		비고
세대	동수	세대	동수	세대	동수	
349	387	100	102	249	285	조립주택 헤비타트 10동 포함

※ 임대·조립주택 미입주자 주택수리·매입, 입주 및 친척 등에 거주



01 구호물품 접수

- ◎ 접수창구 : 산불피해대책본부(고성군 토성면행정복지센터), 고성군 주민복지실
- ◎ 접수기간 : 2019. 4. 5 ~ 5. 31 (당초 4.30 종료, 1개월 연장)
- ◎ 접수 체계도



◎ 보관장소 : 5개소 / 물품 성질별 분류 보관

물품 분류별	생필품 및 의약품류	간식류와 구호키트	식품류	가전제품류	의류
보관장소	경동대 체육관	토성면 복지회관	로컬푸드매장	야촌리 체육관	송암축협창고

35



36

접수현황

번호	분류별	종류(종)	수량(점)	세부품목
계		170	724,630	
1	가전제품	21	6,579	TV / 세탁기 / 냉장고 등
2	생활용품	46	262,538	이불 / 화장지 / 세제 등
3	식료품	37	114,674	쌀 / 라면 / 통조림 / 과일 등
4	의류	8	130,331	신발 / 상하의 / 양말 등
5	구호키트	4	3,662	키트 / 텐트 / 모포 등
6	의약품	4	2,346	구급함 / 처과용품 등
7	기타	50	204,500	간식류 / 마스크 / 목장갑 등

37

02 구호물품 배부

배부 기준

- ◎ 변하기 쉬운 주·부식은 임시대피시설 급식소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에 이재민 식사용 식자재로 제공
- ◎ 이재민의 보관장소 부족 및 관리 등을 감안 어려회에 걸쳐 배부
- ◎ 중고 의류, 신발 등은 사용가능 여부 선별 정리한 후 장마당을 통한 배부
- ◎ 가전제품은 임시주거시설 입주에 맞춰 배부,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함

배부 대상자 [792가구]

- ◎ 이재민(전파,반파) 430가구, 기타(소파) 76가구, 중소기업-소상공인 168가구
- ◎ 그 외 사각지대 피해계층(농업인,축산,양봉 등) 118가구



배부대상시설 [22개소 / 임시주거시설 운영]

구분	시설수	시설명
임시대피소(학교)	3개소	천진, 아야진, 동광
마을회관(경로당)	8개소	인흥1,2,3리, 성천리, 원암리, 용촌1,2리, 봉포리
연수원·콘도 (임시주거시설)	11개소	국회고성연수원 /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 한국전력공사속초연수원 신용보증기금속초연수원 / 국민은행속초연수원 / 농협보험설악수련원 델피노골프앤리조트 / 레이크오션 / 설악포유리조트 / 아이파크콘도 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
기타	-	자원봉사단체 급식소(밥차) 및 친인척 등

배부 현황

◎ 이재민(전파,반파) 430가구, 기타(소파) 76가구, 중소기업·소상공인 168가구

접수량	배분량	잔량	잔량내역
724,630	724,285	345	재해대비 비상 물품으로 보관



대장자별 주요 배분내역

대 상	가구수	품 명	세부품목		
			시 기	수 량	내 역
이재민 (전파·반파)	430	가전제품	5.8~6.29	냉장고,TV,세탁기 등 11종 4,730점	임시주거시설(조립,임대) 입주 필요용품
		의류	4.10~8.2 (총 8회)	새옷 110,304점 중고의류 23.3톤	사이즈 균등 배분 문제로 장마당 운영 배부
		입주생활용품	6.6~6.29	식료품,주방용품 등 70여 종	임시주거시설 입주용품
	166	가구	7.9~7.20	침대 1종 166점	임시주거시설(임대,기타) 입주가구
영유아	56	영유아용품	5.22~5.23	분유,이유식 등 4종 1,081점	이재민 중 영유아가구 다문화,한부모가구 영양플러스가구
중학생	12	컴퓨터	5.30	컴퓨터 12점	이재민 중 청소년가구
초등학생	18	학용품	6.20~6.21	연필,크레파스 등 12종 648점	이재민 중 초등학생가구
어르신	172	실버용품	7.10~7.11	실버카,온열기 2종 172점	이재민 중 기초연금 수급가구

41

시기별 주요 배부



42

레미벨 주요 배부 (주요 가전제품)

품명	기부자	접수량	배부량		잔량
			수량	배분내역	
냉장고 (560L)	6	438	430	이재민 430	8 (공동용/대형 800L/삼성)
세탁기 (12kg)	16	447	430	이재민 430	15 (공동용 대형17kg/삼성) / 2
건조기	1	15	-	-	15 (공동용/9kg/삼성)
전자레인지	5	449	432	이재민 430 대피소 2	17 / 13 (공동용/삼성)
TV (32인치)	8	433	430	이재민 430	3
전기밥솥	4	699	687	이재민 430 / 소파 76 / 소상공인 168 자원봉사 1 / 경로당 8 / 개인 2 / 인홍3리 2	12
선풍기	8	444	434	이재민 430 / 적환장(환경) 1 개인 1 / 자원봉사 2	10
청소기	8	435	430	이재민 430	5
공기청정기	14	435	430	이재민 430	5 / 3 (공동용/대형/능협) / 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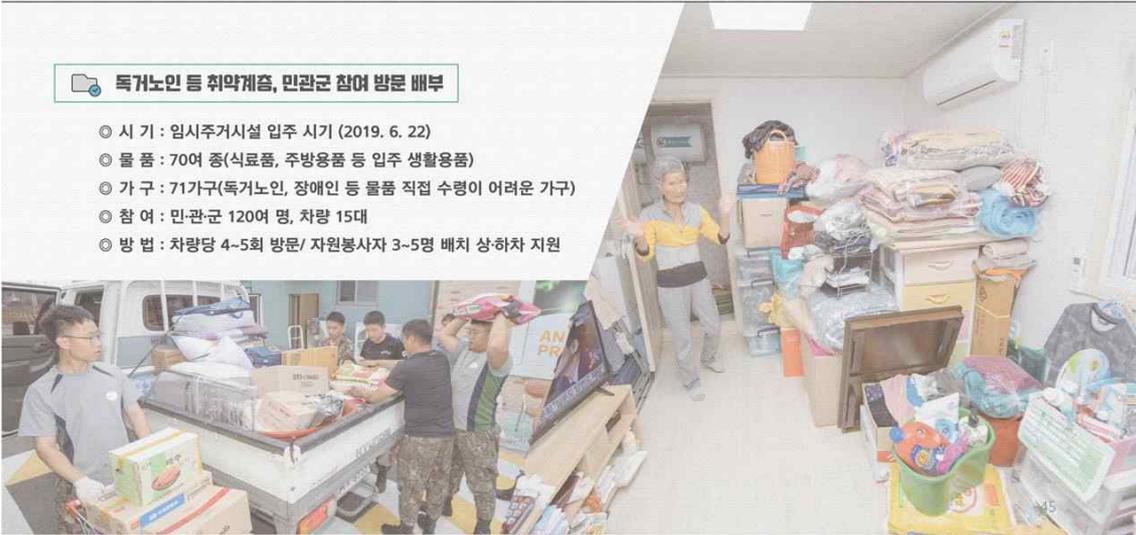
레미벨 주요 배부 (의류 장마당 운영)

횟수	일시	장소	참여가구	배분 물품
계	총 8회		1,485	새 의류 110,304점 / 중고의류 23.3톤
1회	4.10	경동대 (체육관)	297	중고 의류, 신발 4톤 / 패딩 644점
2회	4.14	아아진 초교 (나래관)	187	중고 의류, 신발 5톤 / 새 신발 992점 / 양말,속옷 5,263점 / 수건 등 1,885점
3회	4.21	아아진 초교 (나래관)	103	중고 의류, 신발 3톤 / 새 신발 532점 / 양말 1,205점
4회	4.24	아아진 초교 (나래관)	116	중고 의류, 모자, 가방 2.3톤
5회	4.28	아아진 초교 (나래관)	261	중고 의류, 신발 4.5톤 / 패딩 641점 / 바람막이, 후리스 등 1,771점
6회	5.5	노송공원 (용촌1리)	79	중고 의류, 신발 1.5톤 / 패딩 149점 / 새 신발 158점 / 바람막이, 후리스 등 512점 양말, 속옷 2,771점 / 수건 등 1,185점
7회	6.4	경동대 (체육관)	30	중고 의류, 신발 1톤 / 패딩 56점 / 새 신발 58점 / 바람막이, 후리스 등 175점 / 양말속옷 1,102점 / 수건 등 1,055점
8회	8.1~8.2	경동대 (체육관)	412	중고 의류, 신발 2톤 / 새 의류 (상하의) 25,331점 / 양말, 속옷 63,373점 / 새 신발 1,446점

44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민관군 참여 방문 배부

- ◎ 시 기 : 임시주거시설 입주 시기 (2019. 6. 22)
- ◎ 물 품 : 70여 종(식료품, 주방용품 등 입주 생활용품)
- ◎ 가 구 : 71가구(독거노인, 장애인 등 물품 직접 수령이 어려운 가구)
- ◎ 참 여 : 민·관·군 120여 명, 차량 15대
- ◎ 방 법 : 차량당 4~5회 방문/ 자원봉사자 3~5명 배치 상·하차 지원



03 성금 모집 및 배분



성금모금 개요

- ◎ 기 간 : 2019. 4. 5 ~ 2019. 6. 14
- ◎ 기 관 :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8개 기관
- ◎ 총모금액 : 560.9억원 / 전국

기부금 배분

- ◎ 배분횟수 : 4회(지정기탁금 포함)
- ◎ 배분기간 : 2019.4. 30~ 8.14
- ◎ 배분기관 및 성금액
 - 일반 성금 : 재해구호협회 등 2개 기관 / 344.36억원
 - 지정기탁 성금 : 고성군 / 16.56억

※ 아동 등은 어린이재단 등에서 추진 / 가전, 가재는 대한적십자사

성금 지급절차 비교



※ 성금 최초지급시기 : 강원산불(26일), 포항지진 (37일), 제천화재 (159일)
 ※ 배분항목 기준 결정 시, 시·군 의견수렴, 강원도 취합제출

일반성금 지원액

(단위:백만원)

항목	1차 지원 (4.30~6.20)			추가 지원 (7.23~현재)			합계		
	지급기준	세대	금액	지급기준	세대	금액			
합계		1,241	18,557		686	15,879	34,436		
주택	전파	30	326	9,780	3천만원 이상	실거주 45	102	4,590	(21,395)
					미거주	30	14	420	
					3천만원 미만	실거주 35	163	5,705	
	미거주	20	45	900					
	반파	15	52	780	3천만원 이상	실거주 25	24	600	(1,865)
					미거주	15	3	45	
3천만원 미만					실거주 20	19	380		
미거주	10	6	60						
소파	5	78	390				(390)		
세입자	전·반파	10	120	1,200	전파	5	115	575	(1,775)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액의 30%		235	4,680	1억 ~ 3억 미만 / 5 3억 ~ 10억 미만 / 10 10억 이상 / 15		195	2,604	(7,284)
가전·가재 (세입자 포함)	전파 4.25 반파 2.15		430	1,727					(1,727)

※ 주택 추가지원 지급기준 : 재산세 과세시가 표준액 적용

지정기탁 성금 지원액

(단위:백만원)

구분		대당가구	지원기준액	금액
합계		799	-	1655.5
주택	전 파	30백만원 이상	3	351
		30백만원 미만	208	520
	반 파	30백만원 이상	27	54
		30백만원 미만	25	50
소 파	83	190		
세입자	전 파	116	1	116
	반 파	4	2	8
	소 파	8	2	16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신고액에 따라 구분	206	1 ~ 2.3	336.5
사각지대	종교·요양시설, 기타 - 전파, 반파, 소파로 구분	5	1.6 ~ 4	14

※ 주택은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49

수습복구과정 설명 간담회 2019. 5. 28.





01 인력지원

계	자원봉사	공무원	군인	경찰	기타
13,471	7,666	3,372	2,324	11	73

02 자원봉사 활동 준비

- ◎ 고성군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운영
 - ◎ 1365 자원 봉사포털에 팝업 게시 : 행안부
 - ◎ 중앙수습지원단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 행안부
 - ◎ 열차 운임 및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 중앙부처, 강원도
- ※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 : 고성군

03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

- ◎ 이재민 의식주 해결을 위한 급식, 급수
- ◎ 구호품 운반 및 정리, 세탁 자원봉사
- ◎ 헌옷 기부에 따른 분류작업
- ◎ 발차 배식 및 도시락, 부식 배달 봉사 활동
- ◎ 피해시설 복구 : 잔재물처리, 청소 등
- ◎ 임시주거지역 주변환경 개선
- ◎ 영농지원 : 모내기, 관목제거 등 농촌일손돕기



“
2019. 4. 4 ~ 4. 5
재난구호(강원, 고성 산불 이재민)활동사례
이재민 구호 개선과제
”



01 산불현장사태의 개선

1. 피해신고 접수 시 관련부서 공유체계 유지

- ◎ 주택, 복지, 이재민, 산림, 농업, 소상공인 관리부서간 공유

2. 피해조사시간 및 NOMS 임력시간 부족

- ◎ 사회 및 자연재난의 피해규모별 조사입력기간 조정
→ 행정안전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개선 건의

3.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현황과 상이

- ◎ 사회재난 등 재난별, 규모별 운영지침 개선
- ◎ 공공기관 연수원 및 민간시설 콘도 등 추가 지정 / 반영
※ 민간시설 사용료 지급 근거 마련

4. 임시주거시설 관리책임자 : 읍면동 직원

- ◎ 대규모 재난 시 시군구로 변경 / 지침 개선

5. 임시주거시설(조립·임대주택) 지원 주관부서 출현

- ◎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발생시 주택부서로 매뉴얼 개선

6. 구호물품 중간 거점센터 운영

- ◎ 구호물품 보관장소 부족으로 야외 야적 : 식료품 부패
→ 광역자치단체 단위 2~3동 보관 창고 건립운영



02 구호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처음인 재해구호 - 구호부서 기피, 경험없는 공무원 - 폭주하는 민원, 매뉴얼이 있어도 우왕좌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구호업무의 전문성 경험축적 요구 및 제도적 보완 → 담당공무원 이동시 전문재해구호 교육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 - 배분대상 및 기준 근거 미비 (사회재난) - 현장조사·확인없이 피해 신고액으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재해구호계획 기준 및 운영 대응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원(구호) 불만족 - 위로가 아닌 보상으로 생각하는 국민성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피해시 성금지급액 상이 - 2018년 동해안 산불 : 240만원 / 가구당 - 2019년 동해안 산불 : 8,000만원 / 가구당 * 주택 전소시 강원 고성군 사례 ▶ 동일한 지원체계 구축 / 기금적립 방안 마련

◆ 재해구호 교육 및 재난 대응훈련 정착의 필요성 인식

03 재난업무 담당자의 역할



1. 법률 등 관계 규정 습득 → 개념정리

2. 복구지침 및 매뉴얼 습득

◎ 재난별 ⇒ 자연재난, 사회재난

3. 반복 교육 및 훈련 필요

4. 재난시태별 대처능력 배양

※ 상황발생시 지휘관의 판단 및 신속 대처방안 중요

5. 재난상황 대처의 환류·개선

- ◎ 법령·규정 개정 건의
- ◎ 매뉴얼 및 지침 개정·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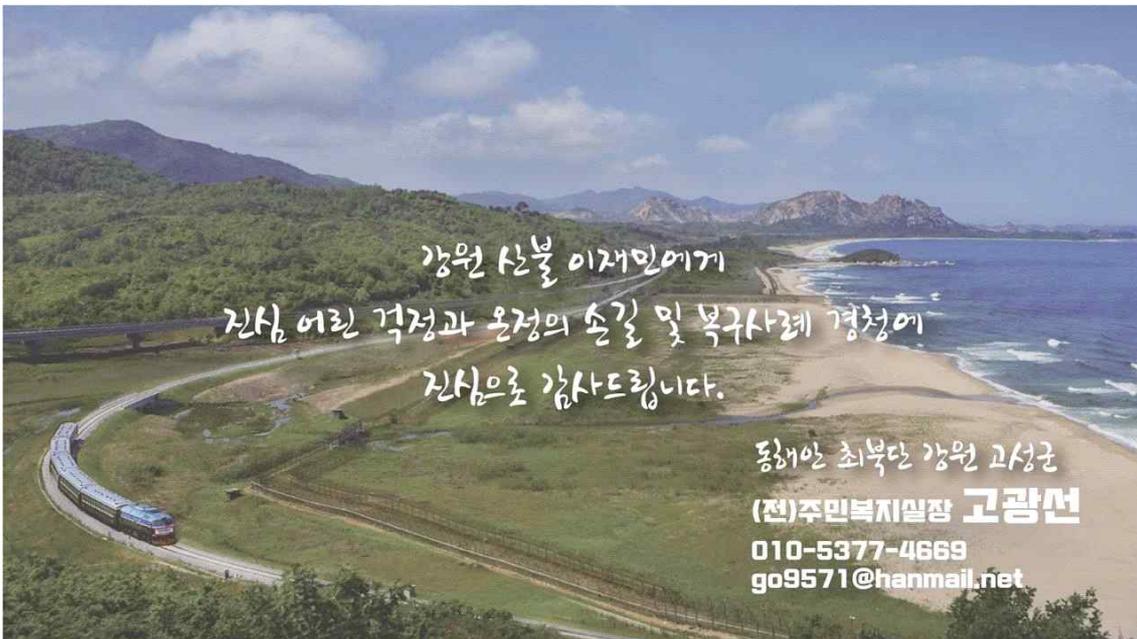
04 산불재난사례를 통한 지역회복의 교훈

- ◎ 강한 강풍(35.6%)에도 산불진화가 조기수습되는 대응체계 구축
- ◎ 모든 국민들과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로부터 보내온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 재난의 신속하고 빠른 복구사례로 평가
 - ✓ 강원산불은 다른재난에 비해 정부지원금과 많은 성금·성품지원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복구를 위한 혼신의 노력
- ◎ 산불발생 원인자인 한전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구상권 청구협의를 하였으나 미해결로 보상지연
 - ✓ 구상권 청구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 피해기준 적용에 따른 이재민간 갈등 초래
- ◎ 이재민은 물론 소상공인, 사각지대까지 신속한 성금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도모로 신속한 일상생활로 복귀

2019. 4. 4 ~ 4. 5 강원(고성)산불 이재민 구호 사례 / 산불복구 현장



2019 고성 산불백서



강원 산불 이재민에게
진심 어린 걱정과 온정의 손길 및 복구사례 경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행한 최북단 강원 고성군
(전)주민복지실장 **고광선**
010-5377-4669
go9571@hanmail.net

[발제]

산불한테 빼앗긴 것들,
산불한테 얻어야 할 것들

2

-고성 원암리 산불 이야기-

■ 작가, 문학박사 손 윤 권

산불한테 빼앗긴 것들, 산불한테 얻어야 할 것들

- 고성 원암리 산불 이야기 -

손윤권(작가, 문학박사)

*이 이야기는 2020년 7월 13일, 고성군 원암리에서 가진 송규화 이장님과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쓰인 소설 형식의 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9년 4월 4일의 산불 발생부터 1년여가 지난 2020년 여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터뷰 당시에 함께했던 노인회장님의 입장과 시각으로 풀어냈는데, 이는 보통의 수기가 지닌 ‘감정 과잉 노출’ 및 ‘자기애’를 극복하고 사건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허구를 가미했지만 지엽적인 부분에서였고, 대부분은 실제 사실에 기초합니다. 작가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현장에 대한 재현이 아니기에 그 부족한 부분은 고성 산불을 다룬 신문기사 및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참고하여 작성했음도 아울러 밝힙니다.

2020년 8월, 제출 당시의 원제는 「고성에 산불이 나던 날, 송 이장은 숲검댕이가 됐어-고성 산불을 겪은 노인회장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지면 관계상 전문을 수록할 수 없어 원래의 글에서 후반부만 떼어낸 것인데, 참고로 글의 전반부는 2019년 4월 4일 원암리 산불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과 초기 산불 진압에 관한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아무쪼록 송규화 이장님과 노인회장님의, 재난복구 노력 및 마을에 대한 애정이 읽는 분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재난 발생과 복구라는 물리적 의미에서의 회복을 넘어 ‘인간성 회복 혹은 공동체의 회복’으로 읽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인식 및 감성의 회복’ 이야기로 읽히길 바랍니다.

산불은 우리에게서 집, 소, 뽕, …… 다 빼앗아갔어

그 무렵, 속초 시내로까지 날아가 만행을 저지른 불도 어느 정도 진화가 돼가고 있었다. 나는 잠 한 숨 못 자고 이웃들이 속절없이 집이 타서 물러났는 걸 지켜보고 소방관들이 잔불을 정리하면서 피어나는 연기를 찾는 걸 지켜보았다. 우리와 연락이 안 돼 속을 끓이던 큰아들도 다녀갔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섰다. 4월 5일, 오전 9시에서 열한 시 사이에 웬만한 잔불은 다 진압을 했다. 주민들은 혹시라도 잔불이 남았다가 또 큰불이 될까봐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살살이 살폈다. 안탄 물건이 있는지, 챙길 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잣더미를 뒤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행색이 참으로 초라했다. 그들은 잣더미에서 찌그러진 냄비며 깨진 그릇 사이를 뒤적여 쓸 만한 게 있는지 찾아봤지만 열에 아홉은 다 못 쓸 것이었다. 다 못쓰게 됐네! 성한 게 하나도 없어! 죽은 자식 불알 만져 보는 격일 텐데도, 쭈그리고 앉아 뭐 건질 게 있나, 성한 게 있나 한참 들었다 놔다 하다가 맥없이 떨어뜨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는 여자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한국동란 때 폭격에 맞아 홀랑 탄 집들을 보고 우리들의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러고 주저앉아 울던 게 기억났다.

“지금 그깟 그릇 가지구 난리야, 난리길! 집이 다 물러났고, 소가 다 타 죽었는데!” 제 마누라 어깨죽지를 잡아채 건물 잔해에서 끌어내는 남자도 있었다. “그래도 우리 집 장항아리들은 불이 살려주고 갔어. 값나가는 건 다 태워먹고 그건 어떻게 남겼는지, 원. 태울라면 홀랑 태워먹고 가든지.” 하고 막말 하는 할멈도 있었는데 아무도 참견을 안 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못 하는 거 같았다. 할멈의 장독대는 옹기종기 사이좋게 별을 받고 서 있었다. 장독대 옆으로 다 타서 못 쓰게 된 집을 바라보는 할멈의 눈은 많이 울어서 그런지 짓물러있었다. 내가 봐도 불김에 쏘인 이상 뭐 하나 온전한 게 없어 보였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사기나 유리가 그 모양인데, 나무나 플라스틱 나무랭이는 말해 뺏히고 종이나 비닐 따위야 더 말해 무엇 할까.

온 마을을 쪽 돌아봤는데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6.25 난리 겪은 서울 도심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딱 그 짝이었다. 수북이 쌓인 흙과 벽돌, 기왓장과 문짝, 블록 덩어리가 나뒹구는 걸 보고 저기가 집이었구나, 그 터만 확인할 수 있는 판이었다. 불의 혀가 스치고 간 건물은 대개가 다 힘을 잃고, 지붕의 무게를 못 견디고 주저앉고, 기둥의 블록이나 벽돌들이 놀리면서 무너져 뒤엎어버렸다. 흙으로 지었든, 벽돌로 지었든 불에는 다 맥을 못 추었다. 큰불은 꺼져 있다고 해도 아직 잔해에서는 담배 연기만큼 가느다란 연기가 구석구석에서 비어져 나왔다. 물을 덜 맞아 아직 뭔가가 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잔해를 선 채로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이도 있었다. 내가 지나가자 울면서 말했다. “밤새도록 집이 타는 걸 여적지 지켜보기만 했어요! 우리 집이 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는 어디서 여기로 살려온 사람일까. 나는 악수도 안 해본 그 중년 남자한테 다가가 “그래도 힘내셔야 합니다, 못할 소리지만 집은 또 지으면 됩니다. 사람 목숨만큼 귀중한 게 또 있나요?” 하면서 손을 잡아주었다. 그렇게 말을 한 것도 미안하긴 마찬가지였다.

고추모종이나 오이모종을 하겠다고 공을 들여 만든 하우스도 비닐이 다 녹아내리고 하우스파이프의 뼈대만 드러났다. 철제 건물은 철골 구조만 앙상하게 남고 철판이나 기둥도 거의 다 엇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함석들도 다 우그러지고 녹아서 뭉쳐져 있었다. 재활용도 안 될 것 같았다. 나무로 지은 원두막도 잣더미가 돼 있긴 마찬가지였다. 판넬이나 플라스틱 같은, 불에 약한 재료들은 다 녹거나 타서 거의 흔적도 없었다. 집 안팎에 세워둔 자동차도 색깔도 알아볼 수 없이 타서 형체만 드러냈고, 경운기나 트랙터들도 타이어가 다 녹으면서 폭 주저앉았다. 드럼통도 불을 만나 찌그러진 채 나뒹굴고, 어느 것 하나 성한 데가 없었다. 불이 완전히 살라대지 않았다 해도 어떤 물건도 그을음 때문에 못 쓰게 되긴 마찬가지였다. 하룻밤 만에 누가 고물로도 안 실어갈 물건이 되다니. 물건들도 자기들 풀이 하룻밤 사이에 그리 될 줄 알고 있었을까.

인명 피해는 한두 명에서 그쳐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말 없는 짐승들이 겪은

고초도 사람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 주인이 출타 중인 집의 소들은 밧줄에 묶여 있어 불에 타 죽었고, 개들은 목줄을 못 풀어서 불에 그슬려죽었다. 주인이 밧줄을 풀어준 소나 개 중엔 다행히 몸의 일부에 화상만 살짝 입고 살아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화상을 크게 입어서 오래 못 살 것 같았다. 입에 거품을 물고 색색거리는 소도 여러 마리 봤는데, 주인 속은 오죽할까 싶었다. 나중에 수의사 선생도 다녀갔는데, 색색거리는 소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러는 것이고 걸으론 멀쩡해 보여도 얼마 못 가 죽는다고 했다. 그 말에 소의 주인이 소의 목을 끌어안고 막 우는데, 그 속이 오죽할까 싶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같은 불을 겪고도 홀랑 탄 집이 있고 덜 탄 집이 있고 안 탄 집이 있는 것처럼 소들의 운명도 저마다 달랐다. 집은 홀랑 탔는데, 우사는 어깨와 지붕만 살짝 타고 소는 무슨 일 있느냐 싶게 멀쩡한 집도 있었던 것이다. 그 소가 여물 내놓으라고 눈을 굴리고 으며, 하고 울고 있는데 먹을 짚과 사료는 또 홀랑 타버리고 없었다. 비료와 사료를 넣어두는 창고는 홀랑 태웠는데, 우사가 멀쩡한 건 기적 같은 일이었다. 군데군데 불통이 튀어 여기저기 시커멓게 그슬리고 데어서 몽그러진 곳이 많은 개도 제 집이랍시고 폐허가 된 집 근처를 배회하거나 맥없이 쭈그러 엎드려 있었다. 그 주인은 충격으로 펴질러 앉아 있거나 망연자실 눈의 초점이 흐려진 상태로 사람들 말을 잠자코 듣기만 했다. 다리가 화상을 입어 뒤틀린 개도 여럿 봤는데, 오래 못 가 죽을 것 같았다. 닭들이라고 불을 모면할 길은 없었던 모양이다. 토종닭을 꽤 많이 키우던 집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철망만 찌그러진 채 거기가 닭장이 있었던 데라는 걸 알려줬다.

이 집 저 집 다 상황은 마찬가지로였다.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집들이, 이젠 집이라고 할 수 없이 잔해더미가 되었다. 하룻밤 새,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동네. 타지에 갔다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나, 경황이 없어 입은 옷 그대로 피신을 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짖어냈다. 엉엉 울고 싶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 소리도 안 나온다는 걸 누군들 모를까. 집은 홀랑 태워먹고 창고만 남은 집, 집이며 창고며 마당에 세워놓은 트랙터나 경운기가 다 탄 집, 뒤꼍의 나무까지 홀랑 다 타버린 집 등등 몇 집을 빼놓고는 골고루 피해를

다 봤다. 특히나 처음 발화지점이었던 전압기와 가까운 데 있던 집들일수록 거의 다 전소를 했던 것이다. 나중에 군에서 조사를 나와 정리를 한 걸 보니 우리 원암리는 산불로 55가구가 완파, 23가구가 반파, 그리고 조금 피해를 입은 집이 두 집이 나왔다. 그중 하나가 우리 집이었던 것이다. 원암리보다는 작은, 우리 옆 마을인 용촌 2리도 쭉대밭이 됐는데, 거기도 우리 못지않게 피해를 입어 63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서 집 29채가 불에 타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어제 낮까지만 해도 멀쩡하기만 했던 집들 대신 잔해로 남은 집들과, 그 집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성대기만 하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던 송 이장은 낮이 돼서야 세수를 했는데, 그제야 눈도 보이고, 정신이 좀 드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때 이장의 책임이 무섭다는 걸 알았다. 사람들은 그런 송 이장 앞에서 하소연을 하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초상집의 상주인 큰오빠한테 물려든 누이동생들 같은 모습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집 짓느라 고생도 안 했을 텐데. 한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우리 집 안 쳐주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왜 개폐기인지 뭔지, 노후 된 걸 손을 안 보고 놔뒀다가 우리 마을을 이 꼴을 만들어 놓느냐구! 우리 이렇게 되라고 일부러 걱정 안 했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구! 아이고, 원통해! 다들 같이 안 하면 나 혼자서라도 피켓 들고 한전 앞에 가서 데모를 할 거야!” 여자들은 뉴스를 통해 화재 원인을 알고 나서는, 한전을 욕하느라 눈이 새빨개졌다. 아직도 고성 산불이 강풍 때문이냐 한전 때문이냐 그 책임 소재를 놓고 완전히 해결을 못 본 상태인데,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일 때문에 대책반 세워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제 생업을 손 놓고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이며 돈을 썼는지 모른다.

폐허 앞에서 거친 말을 쏟아낸 사람들 마음을 누가 모를까. 평상시 순둥이였던 그들 아닌가. 하룻밤 새 난민 행색이 된 사람들을 보는 것도 못할 짓이었다. 허름한 잠바나 겨우 걸친 채 불을 피해 달아났다 온 사람들이다 보니 입성이 말이 아니었다. “이제 뭘 먹고 사냐고요? 회장님, 우린 어떻게 살아요?” 힘없는 노인인 나를 부여안고 하소연을 하는 이도 있었다. 이 동네가 언제 복구가 돼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걸 그럭저럭 그만 머리를 숙이고 말았다.

사실 나야 집에 남아있던 관계로 내 집을 화마에서 건져낸 게 다행이면서도, 야비하게 내 집만 살리고 남의 집은 불길 속에 방치한 것만 같아 여간 죄송하고 미안한 게 아니었다. 나는 창고와 나뭇가리를 태운 것도 속상했지만, 다른 이들에 비하면 그것은 피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 와중에도 또 농사를 지을 꿈을 꾸었어

보상이 빨리 되길 바랐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와 절차 때문에 생각보다 더뎠다. 또 집이 전소되고 반소되고, 부분 소실되고 그 여부에 따라서 보상 내용이 달라졌다. 잔해더미를 철거한 채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 있는 그대로 둔 채 보상을 받아야 하나 그것도 문제가 됐다. 보상을 제대로 받겠다고 흉물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살아가는 것도 사람들에게겐 고역이었다. 여하튼 보상을 받아 집을 다시 짓게 된다고 해도, 나름대로 소중히 간직해 오다 화마에 잃어버린 가보까지도 국가가 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건 껌데기에 대한 보상이었지 내용물에 대한 보상은 아니었다.

사실 우리 집은 지은 지도 꽤 오래돼 팔아도 제 값 못 받는 허름한 집이었다. 어디에 내놓는다 해서 값을 비싸게 쳐줄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부가 오래도록 살아오면서 장만하고 사들인 물건, 그것이 아무리 귀찮스러운 것들이라고 해도 그 보물들을 간직하고 있는 한 우리 집이 세상 최고의 집이었다. 그런 집을 불길 속에서 건져냈다고 생각하니 참 기막힌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흥천 동면에서 이사 올 때 끌고 온,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향아리도 들어있고, 물레나 썰(씨아) 같은 것도 들어있고, 어렸을 때 배웠던 천자문 책도 들어있었으니까.

그것들도 다 중요했지만 내가 무엇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사진앨범이었다. 우리 애들 백일, 돌 사진부터 학교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우리 부부 환갑 사진, 칠순 잔치 사진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손주들 돌 사진, 유치원 입학, 졸업 사진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보물인 앨범을 불에 안 빼앗겼기 때문

에 내가 최고 복 받은 거였다. 다른 집들은 그런 걸 다 불한테 빼앗긴 거 아닌가. 가전제품이며 가구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돈을 쥐도 절대 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것뿐인가. 꽃 피던 봄날, 열여덟 살 때 날 받아서 혼인예식을 치를 때 입었던 한복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고, 농사를 수십 년 지으면서 써 왔던 농사일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들, 그리고 머리가 커져 객지로 나가 공부하면서 군대에 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에게 보낸 편지 등속을 쪽 모아놓은 나무함, 이런 것도 다 지켰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집 잃고 소 잃고 망연자실,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이웃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며 안심하는 꼴을 들킨 것 같아 미안해졌다. 그래서 잠깐 그 자리를 비켜나 트랙터가 세워져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언덕 입세의 나무들도 불을 만나 다 못 쓰게 돼버렸다. 불길에 휩싸였던 가지에서 새 잎이 돋고 꽃송이가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화상을 입은 사람이 원래의 피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꽃눈과 잎눈이 다 타서 떨어져버리고, 기둥과 가지만 겨우 남은 나무를 바라보니 또 많이 미안해졌다. 배꽃이 하얗게 피던 그 집은 올해부터 배꽃 구경하긴 그르게 됐다. 한창 물이 오른 나무들이 잎도 꽃도 못 피워보고 허망하게 타죽다니. 그런데 나무 옆의 트랙터는 다행히 불이 스치고만 지나가서 사용하는 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았다.

봄별이 화사한 그 시간, 나무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폐허가 된 집들을 바라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민가가 저 모양인데 불을 제대로 만난 산은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불을 제대로 만난 곳은 나무들이 아예 숯검댕이처럼 돼버렸고, 타죽진 않았다 해도 열 때문에 그슬려 나무 구실을 할 수 없는 나무들도 많았다. 그래도 그중엔 운 좋게 그대로 살아난 나무도 있었다. 집과 가축도 다 피해가 달랐던 것처럼. 같은 숲에서도 어떤 나무는 죽고 어떤 나무는 살 가망이 없고, 어떤 나무는 살아갈 희망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한창 나물을 내어 밀고, 꽃을 피울 산이었는데 웬 봉변인가. 그것들이 곧 나와서 무성하게 녹음을 이룰 걸 생각만 해도 내가 회춘을 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는데 올핸 그건 없겠구나, 나는 서러웠다.

진달래가 피고, 이어 산벚꽃이 막 피어날 때 산불이 나다니. 꽃봉오리들마저 다

불속으로 들어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산에 고사리를 꺾으러 가서도, 나무를 하러 가서도 내가 “꽃, 참 잘 폈다!” 라고 감탄을 하면 안식구는 “당신은 무슨 남자가 그렇게 꽃을 좋아하우? 그리고 보면 당신하고 나하군 성격이 바뀌었대니까.” 하면서 통바리를 줄 때가 많았다. 그만큼 나는 꽃이라면 사족을 못 썼다. 꽃 피는 봄을 기다리는 맛으로 지겨운 겨울을 이겨낸 그 와중에 산불은, 내가 좋아하는 봄을, 봄의 꽃들을 알뜰하게도 빼앗아갔다.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사람들 무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더니 이제는 또 농사 걱정이었다. “아유, 올 농사는 지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뽕씨가 다 타버렸는데.” 혼자서 농사를 짓는 빨간 벽돌집 영감이 옷소매로 연신 눈을 훔치면서 우는 소리를 했다. 그러자 다들 농사 걱정에 시무룩해졌고 심각해졌다. 가만히 듣고 있던 송 이장은 “정말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한두 분 빼곤 인명피해가 안 난 걸 고마워합시다, 서로 힘 모으면 그깟 농사 못 짓겠어요? 눈 감고도 농사지으실 수 있는 분들이 뭘 걱정이세요? 육묘장 멀쩡하니 논농사 걱정은 말아요. 돈 없으시면 내가 육묘, 거저라도 다 내어드릴 테니까. 아셨어요? 산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못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원암리 인심이 그거밖에 안 돼요?” 하고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저거야말로 송 이장답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송 이장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통명스럽네, 어찌네, 말들이 많아도 저런 걸 보면 이장 하나는 잘 뽑았단 생각이 들었다.

송 이장은 토성면에서, 또 고성군 전체에서도 제법 크게 육묘장을 운영해 왔다. 다행히 그의 육묘장은 화마에 휩싸이지 않았다. 토성면에서는 130농가가 논농사를 짓는데 육묘장이 타면 8개 마을이 아예 논농사를 망치게 돼 있는 상황이었다. 송 이장은 산불이 나기 몇 해 전에 군에 가서 손수 농사짓는 노인들이 육묘 걱정 안 하도록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잘사는 자식을 두면 자식들이 육묘장에서 모판을 사가도록 돈을 드리면 되는데, 자식들이 형편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꼬부라진 노인네들이 직접 모판을 길러야 했다. 70세 이상 농가에서는 보조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것이고, 군이 거기에 응해준 것이다. 이걸 전국에서 처음 있

는 일이었다.

고성(高聲)이 안 나는, 우리 고성(高城) 원암리가 되길

4월 5일 낮에는 별이 좋아 푸근해서 괜찮았지만, 오후가 되면서 바닷바람이 들이치니 몸이 으슬으슬 추워왔다. 불로 집이 홀랑 타버린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고 잘 곳도 없었다. 저녁이 되니까 다들 입을 것 하나 못 건진 게 더 서럽다고 했다. 군에도, 도에도 구호요청을 해냈지만 아직 뭐가 제대로 당도를 한 것 같지 않았다. 여러 곳에서 나와 피해 상황을 조사해 갔고, 여기저기서 구호의 손길이 다가왔지만 아직 중구난방이었다.

우리는 우선 급한 대로 마을 회관을 대피소로 정했다. 그리고 마을 대동회 그릇들을 총동원해 거기다 밥을 해서 먹기로 했다. 집을 잃어버리고 가축을 불에 빼앗기고 냇마져 잃은 사람들이 마을회관이 대피소라는 방송을 듣고는 속속들이 모여들었다. 저 사람도 우리 마을 사람인가 싶은 사람들까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이사는 왔지만 인사를 안 해서 모르는 외지 출신들이었다. 불을 만난 황망함에 다들 기가 죽고 눈이 썩었다. 서로 딱하긴 마찬가지였고, 너 나 가릴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대피소 생활에 들어갔다. 다행히 마을 회관은 넓은 편이어서 여자들은 1층에서, 남자들은 2층에 머무르게 했다. 말이 좋아 대피소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씻는 것도 싸는 것도 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 사이에 전국에서 구호품이 도착하고, 적십자사에서 보낸 버스를 타고 자원봉사자들이 당도했다. 기관에서 보내준, 민간인들이 거둬서 보내준 성금이 도착했고, 이러저런 이름의 기관에서 생필품들이 도착했다. 군에서, 도에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사람들이 나왔고, 대통령까지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위로를 해주고 갔다. 송 이장은 산불 이후 관과 마을을 오가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무뚝뚝한 송 이장이지만, 나는 그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잘 알기에 우리 큰아들도 저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보상을 잘 받도록 일일이 조사를 했고, 그걸 빠짐없이 다 적어서 상부에 보고했다. 이후

매일매일 나는 노인회장이라는 위치보다 어른으로서의 체통에 맞도록 수시로 집과 마을회관을 오가면서 이장을 도왔다. 이 마을을 위해 굶은일 할 사람은 송 이장이니까.

다행히 얼마 후에 고성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연수원도 개방해 주어서 이재민들이 이전보다 조금은 더 편하게 쉬게 됐다. 거긴 그나마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똥간 같아도 내 집이 최고라는 말이 괜히 생겼겠나. 집 떠나니 다들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울상이었다. 아침저녁으로 먹어야 하는 약도 못 챙겨와 속상해 하는 이부터, 남편 무공훈장이 불에 탄 걸 못 구해낸 걸 끊임없이 안타까워하며 우는 이에,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딸 월세 보증금 올려줘야 해서 현금을 천만 원 찾아다 농작 깊숙이 넣어놨는데 타지에 나갔다가 오는 바람에 불에 홀랑 날렸다고 원통해 하는 이에 저마다 사연도 많았다. 작년에 빚을 내 집을 지었는데 그걸 통째로 태워먹었으니 어찌느냐는 사람에, 십 년 넘게 식구처럼 길러온 개가 죽어서 속상하다는 사람에, 정말 들어도, 들어도 별의별 사연들이 넘치고 넘치는 대피소였다. 대피소 안은 걱정과 탄식으로 이래저래 눈물바람이었다. 다들 자신이 최고의 피해자인 것 같다가도, 누가 울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최고 피해자인 것처럼 들어주다 보니, 한 가족이 돼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대피소 생활을 잘 감당해 내던 사람들이 구호품 배급과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을 앞두고는 다들 예민해졌다. 혹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까 지레 걱정하고 찾아와서는 송 이장에게 몸쓸 소리도 많이 했다. 자초지종 알아보지도 않고 툭하면 “이장 뭐하냐?”, “우린 이 마을 주민도 아니냐?” 핏대를 세우고 욕을 하고 샷대질을 해댄 것이다. 아, 인간이 다 저 모양이구나! 나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다. 평소 마을회관에는 안 나오더니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사실 그들은 산불이 나고 나서 바로 마을회관에 들르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마을회관을 찾았으면 말도 안 한다. 면사무소로 갔다가 마을 회관에 지원물품들이 다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것이다. 평소 이장이 누군지 알려고도 안 하다가, 구호품이 미처 못 돌아간 걸 알고는 그제야 이장 잘못으로 돌리려 들었던 것이다. 그 와중에 고성도 오가고, 서로 얼굴

북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잦았다.

요약하면 당신 스스로 처음엔 이장이고 뭐고 안 필요해서 여태까지 가만있었던 거 아니냐, 필요 없을 땐 가만있다가 뭐가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이장 탓 하나, 이장인 나도 그 점이 부족했던 건 잘 알지만 당신도 잘 한 것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신고를 하자, 뭐 이런 말들이 오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주소와 핸드폰을 다 이장에게 알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송 이장이 이리저리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하는 게 안 좋아 나는 이렇게 한마디 제안을 했다.

송 이장은 화를 꼭 누르고, 마을 주민들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생업, 뭐 이런 정보들을 일일이 다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체계를 못 잡아놔서 107가구의 집 주인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아는 게 없었지만,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마이크로 방송을 해서만은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추후로 마을에 위기가 생기면 동시다발로 문자를 보내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계를 떠나서라도 준비가 돼야 할 일이었다. 비온 뒤 땅 굳는다고 했다. 그전엔 안 됐던 게 이제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갔다. 대피소 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관에서 보상 규정이 내려왔다. 전소나 반소냐에 따라 지원 금액이 정해졌고 1년 동안 살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도 마련해 준다고 했다. 또 5년 거치, 십년 상황으로 대출도 해준다니까 그것도 이재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 갖고 집을 다시 짓는 건 너무도 요원한 일이었다. 여기저기서 지원을 해주고 보험금도 나오고, 성금도 받고 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잣더미에다 다시 터를 고르고 집을 새로 지으면서, 낭패감과 허탈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농기계에 대한 정부의 보조와 지원도 후한 편이긴 했다. 뭐 일일이 보상을 다 받으려면 밑도 끝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지원에 힘입어 거처할 집을 새로 짓고 차도 경운기도 다시 마련하면서 다시 마을엔 생기가 돌았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는 정부가 나서서 마을 공공수도며 간이상수도 시설도 정비해줬다. 2020년에는 원암리 LPG 가스 배관공사로 예산 12억이 책정됐다. 더불어 오수관, 집수정 이런 것도 정비가 돼가고 있다. 또 도로정비도 새로 하게 되었고, 지적도도 새롭게 만들게 됐다.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 일환으로 지적 정비를 하게 된 것도 아주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는 필요한 개인이 돈을 들여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을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번 일로 원암리 주민들의 토지 소유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두가 확인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다만 토지 측량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지적도와 다르게 측량이 되다 보니 네 땅, 내 땅 따지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 토지 측량 문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겼다. 그건 아쉬운 일이다. 자기 땅이 한 자, 1미터 더 들어가면 난리가 났다. 하긴 누군들 그러면 기분이 좋겠는가. 땅이 돈이 되는 세상이다 보니 다들 약한 속내를 못 숨긴 것이다. 리어카도 겨우 다닐 정도로 안 좋았던 도로였는데, 2차선으로 잘 놓이니 이런 건 잘된 일이다 싶다. 재난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시설이 잘 구축되는 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산불 자체는 엄청난 손해를 안겨줬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도와준 덕분에, 마을이 갖춰야 할 기초가 잘 구축돼 가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다 싶다. 그래야 나중에 이 땅에서 살 원암리 사람들도 분쟁이 없을 것이긴 하다.

보상의 와중에 안타까웠던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보조금 받는 데 차등이 있었다는 점이다. 산불이 나기 불과 며칠 전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한 경우,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게 된 것이다. 정말 산불 나기 불과 한두 달 전, 어이없게 일주일 전에 없애버린 이들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그것도 안 좋은 일이었지만, 가장 말이 안 되는 건 목숨을 걸고 집을 화마에서 지켜낸 사람들에게겐 혜택이랄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집이 전소된 사람에겐 보상이 많은 데 반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보상이 없는 데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전소, 반소를 놓고 보상금 책정이 달라

지다 보니 완소된 집의 사정을 부러워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겼다. 사실 나 같은 경우 죽기 살기로 집을 살리면서 창고와 나뭇가리를 태워먹었는데,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해줬다. 차라리 흘랑 태워먹었더라면 보상이나 잘 받았을 텐데, 하면서 나를 딱해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길 들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보상 받아 집 잘 짓고 사는 게 그리 좋은 일은 아니지 않은가.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법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조금의 이익과 손해 때문에 같은 마을 사람끼리 죽기 살기로 으르렁거리야 하는 건지, 죽을 날이 가까운 노인네 생각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참 씩씩했다.

그렇게 받은 도움을 우리는 이렇게 갚았다

나는 산불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 그 짧은 시간에, 전국의 소방차가 다 동원되고, 민관군이 나서서 불을 꺼주고, 전국에서 도움을 주러 사람들이 몰려오고, 구호품들도 뭐 하나 안 부족하게 종류별로 다 보내줬으니까. 또 여기저기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생필품을 날라다 마을회관에 갖다 주고 삼시세끼 밥에 국에 반찬을 만들어 배를 굶지 않게 해주었으니까. 특히 적십자에 고마워해야 할 것 같다. 적십자사의 대형버스와 술한 자원봉사자들의 어깨띠와 마크만 봐도 힘이 났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남을 돕는 그 조직력과 단합에 감동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이 뭘 사다 지지고 볶지 않아도 식판 가득, 국과 밥과 반찬을 담아주는 그들이 있었기에, 집을 잃어버린 절망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적십자사에서 나온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분들은 무려 25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끼니를 챙겨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

어디 그뿐인가. 그 사이, 서울의 누스킨 코리아에서는 1억을 고성군을 위해 썼으면 한다고 강원도청에 기탁해 주었다. 강원도에서는 다시 이 돈을 고성군청으로 보내줬고, 군에서는 다시 그 돈을 원암리 재건에 쓰라고 보내줘서 이 돈으로 우리 원암리는 마을회관 리모델링도 했다. 그래서 마을에 생기가 돌게 된 것이다. 그들

의 노고와 후원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었을까. 산 사람은 다 산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는 건 누군가의 도움과 그 도움을 받고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날 고성에 큰 산불이 난 이후로 전 국민이 얼마나 놀라고 안타까워했는지는 뉴스를 통해, 신문을 통해 알게 됐다. 강 건너 불구경, 이라는 말도 있지만, 누가 그런 못된 심보로 우리를 지켜봤겠는가. 아주 못된 사람 한둘이 아닌 다음에야 불이 나는 게 뭐가 그리 즐거웠을까. 사람들이 제 일처럼 걱정해 주고 염려해주지 않았던들 그렇게 빨리 잿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내 집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뻔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런 말은 장난으로도 못할 것 같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남의 고초와 불행을 놓고 그렇게 가볍게, 구경하는 마음이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 원암리를 비롯해 속초 시내까지 번졌던 불이 생중계되는 걸 텔레비전으로 지켜본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속상해 해줬기 때문에, 지갑을 열고 십시일반 용돈을 털어내 성금을 내주었기 때문에, 옷가지라도 얻어 입고 국밥이라도 먹으면서 우리가 위기를 넘겼던 것이다. 그 마음과 손길에서 우리는 크게 위로를 받았고, 얼른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본다. 누군가가 멀리서 응원의 눈빛을 보여주고,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게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지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를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국민들께도 고마움을 표한다.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혼레니 장레니, 큰일이 날 경우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몸으로 깨닫고 살아왔다. 굶은일일수록 누가 돕지 않으면 일을 해낼 수 없었던 게 옛날 큰일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변하면서, 돈이면 만사가 다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런 세상이지만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좋은 일도 아닌데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전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와줬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 특히 산불 이후 비상이 걸려 불철주야 애썼던 군청 공무원들과 농협 직원들, 그리고 적십자사와 거기서 나온 자원봉사자들

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

송 이장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데다, 내가 그 말을 꺼내자 너무 좋은 생각이라면서 그렇게 해보자고 눈을 번득였다. 송 이장은 원래 굵직굵직한 일을 아주 잘 해내는 사람이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동네 어른들 일을 거들 때 보면 젊은 사람한테 있을 패기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 큰일 할 사람이다 느끼고 있었다. 기계에 비유하자면 불도저 같은 사람? 그가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걸 알기에 말을 꺼내놓고 나니 마음이 더 편안해졌다. 이제 시간문제구나!

그다음 문제는, 우리가 선물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회관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선물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원암리에서 나오는 지역 특산물로 해야 받는 서울 사람들도 더 좋지 않겠어요?” 하고 누가 송 이장에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다들 좋다고 했고, 송 이장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추켜세웠다. 여기에 원암리 주민들이 적극 동의를 해서, 우리는 산불이 난 후 지은 농사에서 거둔 농산물로 선물을 하기로 했다.

사실 산불 만나고 나서 우리는 올해 농사를 글렀다고 생각했다. 집 잃고 소 잃고 나서 웬 농사냐 그랬지만, 산불이 나고 얼마 안 돼 농번기가 되자 모두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논으로 밭으로 나갔다. 늘 하던 대로 논에는 모를 심었고, 밭에는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콩도 심고 들깨도 심고 아로니아도 심었다. 불이 나서 농사가 될까 싶은 땅에서도 농사가 잘 돼서 소출도 괜찮았다. 쌀농사를 지었으니까 우선 햅쌀을 쪄어서 20KG씩 50자루를 담았다. 들기름도 짜서 50병 담아놓았고, 아로니아 농사를 짓는 분이 아로니아를 50박스 내놓았다. 그 얘기를 들은 떡방앗간 사장은 자신은 떡을 내겠다고 했다. 이렇게 마음이 담긴 선물이 준비됐고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준 고마운 분들께 보답을 할 수 있었다. 그것 말고도 우리는 마을회비로 떡을 한 다음 군청 전 직원, 농협 기술센터 직원들에게도 돌렸다. 비상사태에서 애써준 그들이 그 떡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게 늙은이 눈에도 다 느껴졌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사태만 아니었다면, 우리 원암리에서는 외지인과 원주민들의 목은 감정도 풀고, 새로운 원암리를 만들어 보자는 목적으로 단합대회를 열었을 것이다. 마을회관 준공식 겸해서, 누스킨 코리아 직원들과 고성군 단체장들을 부르고 해서 열려고 했던 잔치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이다. 우리 원암리가 청정 강원도에 있다고 해도 나라 전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무시하고 행사를 개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끝에 결국은 행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꼭 행사만 치러서 단합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행사 대신 3월에, 우리는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 성금을 모으는 데 동참했다. 그건 우리 마을 원암리뿐만 아니라 토성면 전체 용촌 1·2리, 인흥1·2·3리, 성천리, 봉포리 해서 총 8개 마을 이장들이 5일간 마을별로 성금을 거뒀다. 처음엔 작년에 겪은 산불 피해로 다 마음들이 착잡할 텐데 성금이 건힐까 내심 걱정을 했는데, 무려 1311만원이나 건혔다. 자랑스럽게도 우리 원암리에서만 건힌 게 523만원으로 가장 높고, 용촌1리가 231만원, 나머지 마을에서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힘을 보탰다.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예전에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또 누굴 도우려고 하는 그 태도에 마음이 푸근해졌다.

중요한 건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온정의 손길을 많이 받은 우리 원암리가 성금을 가장 많이 냈다는 사실이다. 끔찍한 산불로 당장 살 거처마저 잃어버린 우리 원암리가 그 어떤 동네보다 더 구호의 손길도 많이 받았기에, 그렇게 남을 돕는 데도 앞장 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게 성금이 모아져, 송이장은 토성면 전체 이장들과 함께 군청에 가서 성금 기탁식을 하고 왔는데, 좋은 자리라서 나도 따라갔다 왔다. 송이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이든 아니든, 주민 대다수가 성금을 흔쾌히 보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직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컨테이너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적든 많은 성심껏 성금을 냈다는 소식에 나도 놀라고 감동받았다.

불이 지나간 자리에서도 풀과 나무는 자란다

그 끔찍한 2019년의 4월이 가고 5월이 됐다. 산불이 휩쓸고 간 원암리 일대 산과 들에 무슨 싹이나 제대로 돋을까 걱정을 했는데, 흙은 재를 거름 삼아 더 실하게 나무와 풀을 키워 올렸다. 불이 탄 곳이 시커멓게 뼈만 남은 나무가 있어 보기에 딱했는데, 땅 속 풀의 씨들이, 나무의 뿌리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어서 살아있는 것은 다 땅 밖으로 생명을 내어밀었다. 여름이 됐을 땐, 풀이 자라면서 푸릇푸릇해지니까 상처도 조금은 아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막상 산에 올라가보면 고아들만 있는 동네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 해가 지나면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생명들이 움트면서 그해의 그 끔찍했던 산불의 자취를 조금씩 감추고 새롭게 숲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반만 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원시인들이 여기저기 다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디 이 땅에 불이 어디 한두 번 났겠는가. 그리고 나무가 천년 넘게 산다고도 하지만, 대부분의 산의 나무들은 운명이 수십 년이고 길어야 백 년 남짓 아닐까 싶다.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닌데, 나무들이 많이 죽었다고 슬퍼하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사람도 한 세대가 죽어야 한 세대가 새로 태어난다. 노인들이 죽어야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는 법이다. 산도 그렇게 세대가 바뀌는 것이다. 어차피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죽는다 생각하면 그렇게 상심에 빠질 일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불을 안 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죽은 나무의 재가 거름이 되어 씨앗이든 어린 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들이 산의 주역이 되는 게 자연의 이치다.

어떤 큰일을 경험해야만 사람은 조금이나마 배울 것도 깨우칠 것도 생기는 법이다. 인재였든 천재였든 산불을 겪으면서 사람들도 깨달은 바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을이 최대의 산불을 겪으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듯이, 원암리 사람들도 그렇게 깨달은 것을 기회로 더욱 발전을 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산불의 기억을 떠올리며 삶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뭘 깨우칠 게 더 있냐고 생각하는 내게도 산불은 이래저

래 깨우쳐 준 게 많은데, 생각이 환한 젊은 사람들이야 말해 뭣할까. 앞으로 원암리 사람들은 타 지역에 난 산불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산불뿐만 아니라 수해, 온갖 기상이변에 따른 재앙들을 가볍게 보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당한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재난을 대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산불도 안 나면 좋겠고 기타 재앙도 없으면 더 바랄 게 없다. 그렇지만 어디 이 세상이 그런가. 온 세계가 지구온난화니 환경 파괴니 뭐니 해서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남의 얘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건 없다고 본다. 우리 손주들도 꼭 산불은 아니더라도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는지를 꼭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잘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늙은 할아버지의 얘기에서 뭘 교훈을 찾아낼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늙은이의 말이 길어졌는데, 그렇다고 못할 말을 한 건 아니니 너그럽게 읽어봐 줬으면 좋겠다. 내 두서없는 글을 그래도 이만큼이나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해 준 두 분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발제]

재난지역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3

강원대학교 교수 왕재선

재난지역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 2021년 강원도 산불 2주기 -
제3회 강원 산불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

왕재선
(강원대학교)

2021. 4.

목 차

I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II 산불재난 현황

1. 최근 10년 간 산불발생 현황
2.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3. 강원도 주요 산불발생 현황

III 산불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1. 강원도 산불발생지역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노력
2. 타 지역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벤치마킹

IV 강원도 산불발생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제언





I.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예) COVID-19, 지진, 화재 등
 - ❖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산불로 인한 화재는 전국에서 가장 빈번하며, 그 피해 규모 역시 타 지역에 비해 크기 때문에 강원지역의 산불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그리고 복구는 지역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슈가 되고 있음
강원도 홍천 산불...오늘 오전 6시30분 진화헬기 3대 투입 예정
소방청 "강원 고성 산불 진화에 소방차 226대·인력 608명 투입"
-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4 05:30 수정 : 2021.03.24 05:30 쿠커뉴스 > 사회 강원도 정선 산불, 속초·고성 악몽에 산림당국 긴장...18시간만에 진화 홍기사단 | 2020-05-01 23:43
김태우 / 기사승인 : 2021-02-21 11:35:51
- ❖ 강원지역의 산불은 대부분 대규모의 피해를 유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
 - ❖ 강원지역의 지리적 특성 상 산불의 발생 시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산불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될 경우 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연구 배경] 강원지역의 산불 재난의 빈번한 발생과 대규모의 피해로 인한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산불재난 발생 시 최대한 빠른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1 / 13 p



I.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목적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 강원지역 산불재난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주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구를 위해서 지역의 자생적인 회복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지역의 자생적인 회복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협업하는 회복력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 본 연구에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재난회복력 제고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도가 된 회복력 제고 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함
- ❖ 그러나 지역의 재난회복력 제고는 지역주민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이를 지원하는 정부, 다양한 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임
- ❖ 본 연구를 통해 산불로 인한 재난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역할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목적] 강원지역의 산불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구를 위해서 주민들의 자생적인 회복프로그램 개발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2 / 13 p



II. 산불재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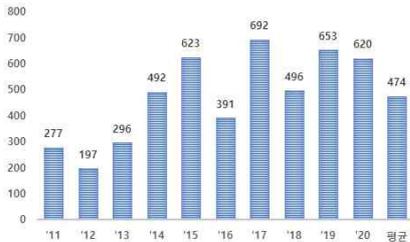
1.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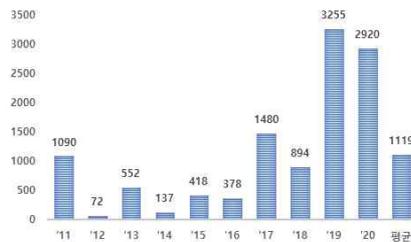
산불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 제7호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

<그림1>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건수



<그림2>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면적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frfr/selectFrfrStats.do?mn=NKFS_02_02_01_09)

산불발생 현황 최근 10년 간 산불발생 건수는 2015년 이후가 이전 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산불발생 면적은 최근 2년이 가장 넓었으며 그만큼 피해규모도 큰 것을 알 수 있음

3 / 13 p



II. 산불재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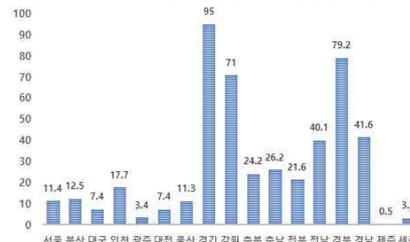
2. 전국 산불발생 현황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전국 산불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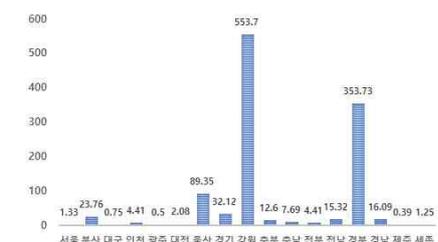
최근 10년 간(2011~2020) 각 시·도별 평균 산불발생 현황을 산불발생 건수와 산불발생 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그림3> 각 시·도별 최근 10년간 평균 산불발생 건수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frfr/selectFrfrStats.do?mn=NKFS_02_02_01_09)

<그림4> 각 시·도별 최근 10년간 평균 산불발생 면적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frfr/selectFrfrStats.do?mn=NKFS_02_02_01_09)

산불발생 현황 경기도(95건), 경상북도(79.2건), 강원도(71건) 등의 순서로 발생빈도가 높았음
 강원도가 산불발생 면적이 압도적으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음

4 / 13 p



II. 산불재난 현황

3. 강원도 주요 산불발생 현황

KANGWON NATIONAL UNIVERSITY

발생연도	발생~종료	발생장소	발생원인	피해면적(ha)
2017	5.6(토)11:42~5.9(화)11:20	강원 삼척 도계	입산자 실화추정	765.00
2017	5.6(토)15:32~5.9(화)06:34	강원 강릉 성산	입산자 실화추정	252.00
2018	2.11(일)16:14~2.13(화)21:00	강원 삼척 노곡	주택화재 비화	161.14
2018	2.11(일)21:27~2.13(화)21:00	강원 삼척 도계	원인 미상	76.46
2018	3.28(수)6:19~3.28(수)22:00	강원 고성 간성	전선단락 추정	356.85
2019	4.4(목) 14:45~4.6(토) 12:00	강원 인제 남	쓰레기소각	344.93
2019	4.4(목)19:17~4.5(금)08:15	강원 고성 토성	특고압전선아크불티	1,266.62
2019	4.4(목)23:46~4.5(금)16:54	강원 강릉 옥계	신당전기초합선	1,260.15

강원도 대형 산불발생 현황 강원도 대형산불 발생현황에 따르면 주로 영동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산불화재의 피해규모가 매우 컸음

5 / 13 p



III 산불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1. 강원도 산불발생 지역의 회복력 제고 노력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회복력 제고 노력사례 강원도 산불 발생 지역의 회복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불 피해로 소실된 마을공동체의 복원이 중요한 과제임. 마을 자체 프로그램, 교육 및 행사 등 복원사업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참여, 사회적 자본의 증대와 같은 재난에 대한 적응력(흡수력)과 복원력을 향상시켜야 함

강원도 고성군: 화목(Burning Tree)한 희망공작소 블랙우드 사업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 강원산불시민기록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고성군 주민들은 불 탄 목재를 활용한 상품 제작을 할 수 있는 공방 조성 사업을 기획 '2020년 상반기 주민 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국비 1억원 지원) 주요 사업내용: 희망공작소 블랙우드 조성(블랙우드 마을협동조합 설립 등), 블랙우드 창의대학 운영, 블랙우드 창의적 굿즈 상품 제작 및 상품 판로개척, 목공 체험지도사와 기능인 양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은 강원산불 재난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2019년 4월 9일 '강원산불 시민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시작함 시민들이 직접 찍은 재난 현장, 피해 주민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과 복구 활동 등 다양한 사진이 업로드함 특히 현장의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의지 하에 프로젝트가 시작됨. 즉, 과거를 정확히 기록해 미래를 대비하고, 기록을 통해 사람과 추억, 역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임

시사점 현재 회복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상대적으로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복력 제고 프로그램은 소수에 그침

6 / 13 p

2. 타 지역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벤치마킹

벤치마킹1: 안산시 세월호

세월호로 인한 피해자와 관련 지역주민들의 회복을 위해서 “재난경험을 사회적 회복력과 공동체 복원으로 극복”이라는 비전하에 실시됨. 2017년 2월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수립하여 5월부터 사업이 집행됨. 우드버닝, 목공, 공방, 오페스트라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비폭력대화교육이나 인문학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 늦기전에 안아주세요 캠페인과 플래시몹, 마을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둠

<표1>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단계별 사업방향

1단계 (추진사업)			2단계 (연장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본 조성 사업 주체발굴	영력 확충 지역 자변확대	체계 구축 경험 공유화	선결과 집중 특화된 성과확산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실현	대외적 가치창출 교류 협력 집중
25명(이)정액의 공동체안심팀장 양성사업지원 사업운영안정화	25명(이)정액의 주민참여공동체 형성사업지원 이차 지원사업	자생적지원팀 주민 상호교류확산 생존인기사업지원 성과공유사업	특화된공동체확성 사업기반확충 유기체 활동진	사업기반확충 지역내연계사업 재난극복 모델구축	활동(공동체)의 국방기관연계사업 지자체연계사업
재난극복 공동체 주체 발굴 및 기틀마련			국내 최초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확산		

출처: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중장기 사업계획/ 김도훈 등(2020)

<표2> 공동체 프로그램의 맥락과 성과



출처: 한소정(2017) 재난 이후 공동체 프로그램 질적연구, 안산더불어사회연
구소 2017년 학술보고회

시사점

본 사업은 사회적 심리회복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08년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내 지원조직이 다수 존재함, 재난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들의 참여하였다는 점 등을 성공요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타 지역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벤치마킹

벤치마킹2: 포항지진

포항시 총해움에 중심이 되어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해 부상 135명의 인명피해와 332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정부에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포항지진에 대한 공동체 회복을 시도하고 있음. '21년 관련사업으로 지열발전소 부지매입·지진연구센터, 지진피해지역 트라우마센터 및 보건소 통합건립,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예정임

<표3>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21년 4월 시

제18조(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는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특성/2.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포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는 포항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공동체 회복시설의 설치) ① 포항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시설을 국가의 협의를 거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설의 장은 포항시내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포항시 주민의 가장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포항시가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포항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피해자와 포항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국가가 운영하여야 하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국가는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표4> 예산 및 시설지원



출처: 이기환, 이현구(2019) 포항지진 피해자지원의 실태와 공동체회복에 관한 연구

시사점

국가주도의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이라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볼 때 대규모 인프라 시설 중심의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음. 정신적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법제화하고 있음

2. 타 지역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벤치마킹

벤치마킹 3: 마을만들기

재난지역관련 직접 사업은 아니지만, 재난취약지역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을 수행되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들은 재난피해복구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줌.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의 성공사례의 특징으로는 지역수요에 대한 파악,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마을만들기를 돕는 중간조직의 매개와 지원, 지역주민들간 소통, 실질적인 이익과의 연계 등이 작용하고 있음

<사례1> 서대문구 개미마을 마을만들기 '인프라 구축형'

- 상황: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서대문구 개미마을은 1970년대에 지은 건물로 대부분 모든 건물이 무허가인 상태로 공가도 많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
- 사업내용: 경제적 취약 계층이 밀집한 빈곤 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운동 차원에서 개미마을 한평공원(노인정 옆 다리 재시공) 추진내용
- 시사점: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도출함
- 다양한 참여주체의 참여(서대문구청, 홍제3동사무소, 개미마을경로당, 개미마을봉사단 및 반장, 이화여대 휴정수교수)



출처 : 하혜수(2016)

<사례2> 충남 백석마을 마을만들기 '일자리 창출형'

- 상황: 마을부녀회에서 독거노인 돌봄이나 양로원 봉사활동 등을 위해 기금을 마련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함
- 사업내용: 부녀회를 중심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매실한과, 매실농축액, 각종 현장체험 등을 개발하여 마을의 신성장 동력 창출, 2012년 8월에 마을기업으로 인증되어 행정자치부의 2012년 전국 최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
- 시사점: 마을 전체 100여 가구 중 절반이 조합에 참여, 16명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일자리 창출



[시사점]

두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마을의 상황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있음. 둘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심리적 공동체 만들기가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사업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행위주체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9 / 13 p

1. 회복력 제고를 위한 방향성 설정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제언1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 강원도 산불발생지역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목표 등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목표, 절차, 기능, 예산 규모 등 포괄적인 목표설정에서 구체적인 예산계획 까지 포괄한 모형 제시 필요

<그림5> 기능적 벤치마킹 예시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 5대방향성	세부 프로그램 명 (예시)	강원도 프로그램 목표	세부 프로그램
지속 자립 기반 마련	- 고잔동마을해설사 - 덕동문공동체 - 꿈영 - 움직이는 사람들	- 지역사회 소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굿벨리지 - OO골 마을학교 - 절치 OO
이해 포용성 증진	- 완리마을 - 문화세상고리 - 4.16 안산시민연대		- 마을의 지속적 자생적 회복
지역 갈등 회복	- 기왕골 마을학교 - 심과 힘 - 차유공간이웃
사회적 가치 창출	- 절치75 - 복사꽃협의체 - 4.16 가족나눔봉사단	*세부 프로그램별 절차, 운영과정, 예산 등을 강원도 맞춤형으로 1차 조정	
대외적 성과 공유	- 416 공방 - 안산관광두레 - 미트너		

[회복력 제고 방향성 설정]

안산시의 경우 공동체 회복사업 5대 방향성과 구체적인 세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강원도 역시 산불발생 지역의 공동체 중심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방향성 설정 필요

10 / 13 p



제언

IV 강원도 산불발생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제언

2. 지역공동체 구성요소를 위한 모형 도출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제언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구성요소와 모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지역공동체 모형은 관련사업의 주요행위자와 거버넌스 구성의 문제임. 곽현근 외(2003), 김영정(2006), 최병두(2006) 등은 공동체 형성의 주체와 역할에 따라 관리주의 모형, 파트너십 모형, 주민협치(協治) 모형으로 구분됨

<표> 지역공동체 구성요소

영역	주요한 자원	하위영역	공간의 범위
지역적 영역	- 영역 - 환경 - 시설 - 형태 - 사회적 다양성	- 크기, 거리, 밀도 - 시설, 여가, 가용 - 가족지원, 인종, 이동성	- 가구, block face - 제한된 영역 - 도시의 구분된 영역
상호작용	- 활동, 시설사용 - 비공식적 상호작용 - 활동, 공식조직 - 정치적 참여 - 지원환경	- 소범, 여가, 직업장 - 근면활동, 이웃, 가족 - 도구적, 정서적 - 커뮤니티, 교회 - 투표, 회의	
인자적 정체성	지각과 인지	- 장소적 정체성 - 인지적 지도화 - 이어연타티 - 상징적 상호작용	- 이름짓기 - 지도화, 경제상징 - 인종, 성, 시무리, 연령 - 상징적 규범, 영역상징
	정서적태도 와동기	- 장소의 상징성 - 감정과 애착 - 안전, 방어 - 공동가치 - 감정어임, 소속감	- 자아고양 - 뿌리찾기 - 장소만족감 - 신성부조 기대 - 공동의 감정
역동적 변화	- 인기, 경기, 계절적		내부자: 외부자 (가주자: 군포자)

출처: 하혜수(2016)

<표> 지역공동체 모형

구분	관리주의 모형 (managerial model)	파트너십 모형 (partnership model)	주민협치 모형 (citizen governance model)
초점	서비스전달체계의 중요성	민-관공동생산 위한 주민참여	주민에게 동등문제 해결의 실질적 권한 부여
주민의 역할	고객으로서의 시민	공동생산자 동반자행정의 대등한 관계	협치자로서의 시민
행정의 역할	공급자	공동생산자, 동반자	촉매자, 촉진자
주민자치센터 기능	문화여가 및 편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민자치
동네(지역)의 중요성	복지서비스 배분의 장, 공동소비와 여가 향유	대의민주주의 실천의 장, 공동체 의식 함양	참여민주주의 실천의 장, 자치공동체 의식 함양
사례	한국 주민자치센터, 일본 공민관, 서양 커뮤니티 센터	일본의 미치즈쿠리, 영국 이스탈링구의 동네 포럼	스위스 준직립민주제 (주민총회 및 주민투표)

출처: 곽현근 외(2003), 김영정(2006), 최병두(2006)에서 재인용

공공동체 모형 선택

규범적 관점에서는 주민협치 모형을 추구하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1) 신속한 재난복구, (2) 지역 공동체의 자생적 회복력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관리모형과 파트너십 모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11 / 13 p



제언

IV 강원도 산불발생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제언

2. 지역공동체 구성요소를 위한 모형 도출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제언3

추진사업 유형의 결정: 추진사업의 유형은 사업추진의 성격, 지원금의 유형, 사업내용, 지역공동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음. 일반적인 구분은 재정사업형이나 기업형, 풀뿌리운동형, 협업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사업성격에 따른 지역공동체 사업유형

사업유형	성격	정부지원	사례
재정 사업형	-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 정부주도	사업비 예산충당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녹색체험마을사업
풀뿌리 자생형	- 자활, 환경, 복지, 주거, 지역만들기 - 자생적 시민단체 주도	일부보조	- 자활공동체사업 - 자활주거복지사업 - 마을만들기사업
기업형	- 사회적 경제활동 - 비즈니스방식 운영	일부보조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형	- 조합원 주도	일부보조	- 육아협동조합 - 생활협동조합

출처: 김선기(2012), 하혜수(2016) 수정

<표> 구성형태에 따른 지역공동체 사업의 유형화

구분	지역공동체 종류
기업형 지역공동체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농어촌 공동체회사 - 자활공동체 - 주거복지사업단 및 주거복지공동체 - 동업회사법인, 아업회사법인
협업형 지역공동체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생산자 조합 - 1차 산업: 농협·수협, 영연초 조합, 산림조합 - 2차 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 3차 산업: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소비자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동조합법인, 영아조합법인, 직육면, 돌돌별 공동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주민자치회(부내회, 청년회) 등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	- 생활문화공동체 - 각종 귀농·귀촌인 단체 - 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태공동체 등 - 로컬푸드, 도시농업, 도농교류 관련 단체 - 기타 각종 공익형 풀뿌리공동체 운동 단체

출처: 곽현근 외(2003), 김영정(2006), 최병두(2006)에서 재인용

추진사업의 결정

사업추진유형은 (1) 추진하는 사업의 비전과 전략, (2) 사업대상인 지역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 (3) 추진주체인 지역민의 참여가능성과 협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12 / 13 p



제언

IV 강원도 산불발생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제언

3. 추진사업의 전략과 단계 결정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제언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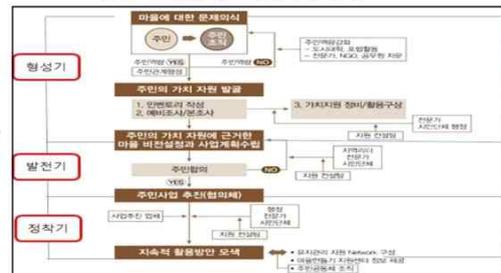
추진사업 전략과 단계 결정: 지역공동체관련 사업의 추진단계는 대체로 형성단계, 발전단계, 안정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단계별로 볼 때 문제의식 및 주민의 가치자원 발굴, 주민의 가치 자원에 근거한 비전 설정과 사업계획의 수립, 주민사업 추진, 지속적 활용방안 모색 등이 필요함

<표> 가와하리 스스무의 지역공동체 사업단계

구분	내용
미션 공유 단계	- 3대 미션 설정 : 지역의 어떤 과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떠한 목표를 세울 것인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 인적 네트워크 형성 장 마련 : 마치고우리 포럼
사업 형성 단계	- 4대 사업 추진 : 사업계획 수립, 사업체 조직화, 활동자금 조성, 사업리스크 축소 방안미련
설계 건설 단계	- 지역공동체 사업체 설립, 중간지원 조직 등 협력확보 - 지역에 공헌하는 공간설계 등
사업 집행 단계	- 운영정보 발신, 사업의 연쇄적 전개 계획수립 등

출처 : 가와하리 스스무(2012)

<표> 지역공동체 사업의 추진 단계



출처 : 중남(2013), 하혜수(2016) 재구성

사업추진 전략

사업추진전략에서 핵심은 사업의 형성단계에서 마을단위 사업에 비전과 미션을 발굴하고 추진주체간에 이에 대한 공유하는데 있음. 아울러 사업계획 추진시 마을단위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적 사업설계가 필요함

13 / 13 p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감사합니다

2021. 4.

[발제]

2021 강원도 산림 복원 및
재생캠페인
희망 Forest

4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모금팀 매니저 송 성 근

2021 강원도 산림 복원 및 재생 캠페인

희망 Forest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 Forest 기획



1. 캠페인 배경 및 필요성

2019 산불 피해현황, 감사피드백, 주요후원자, 필요성

2. 사업 집행계획 소개

캠페인 소개, 캠페인참여 및 혜택, 진행현황 공유



CONTENTS

01 캠페인 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산불 피해 현황, 감사 피드백
- 주요 후원자
- 캠페인 필요성

02 사업 집행계획 소개

2019_강원 산불 피해 현황



고성, 속초



강릉, 동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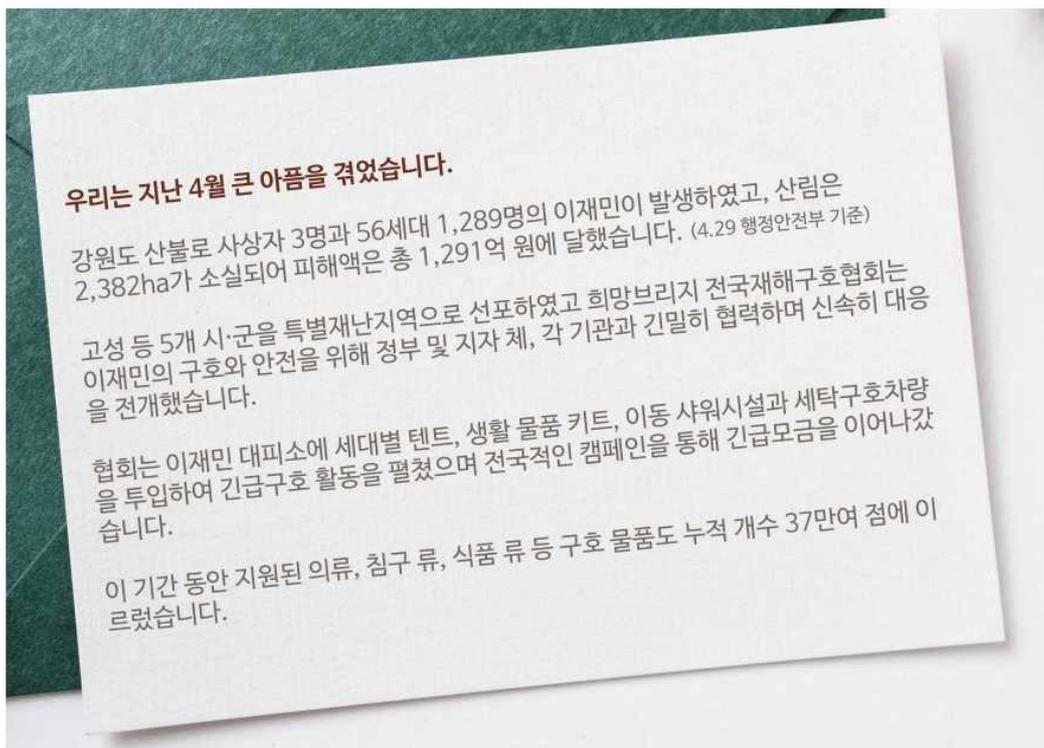
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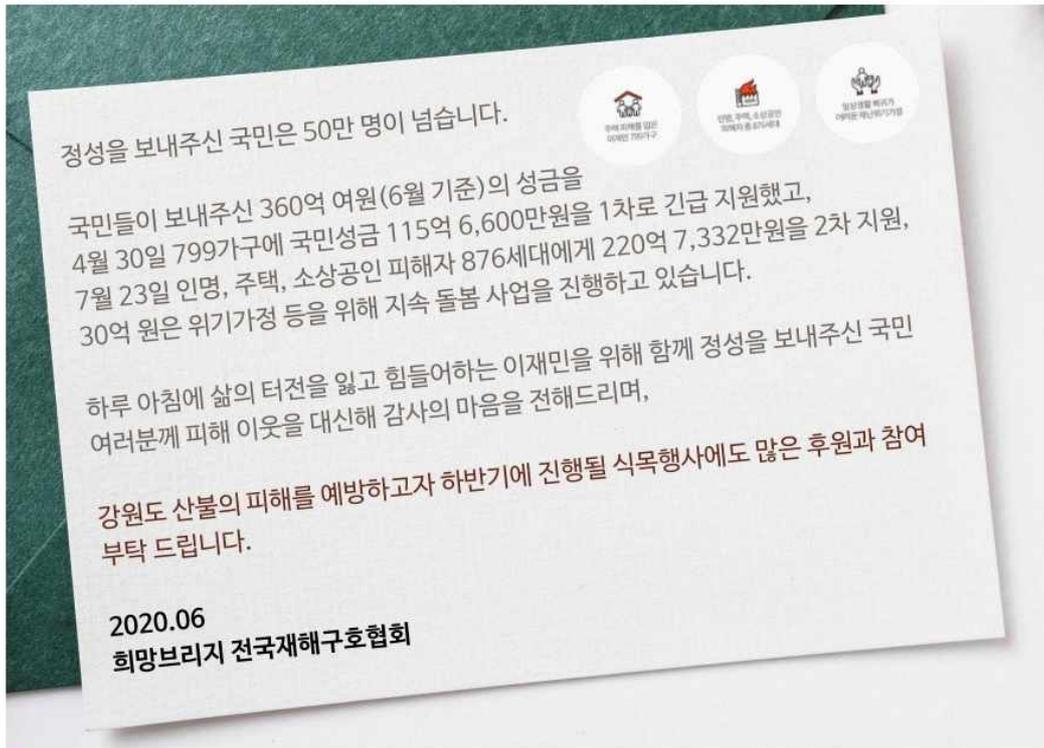
속초, 강릉, 동해시, 고성, 인제군 등 5개 시·군에서 산림 6,856만 6,800평 훼손 (여의도 면적 87만 7,200평의 약 10배)

사유시설 피해			공공시설 피해		
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백만원)	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백만원)
인명(명)	3	-	산림시설(개소)	11	23,425
주택(동)	553	21,756	관광시설(개소)	31	31,100
농업시설(개소)	182	1471	군사시설(개소)	94	9885
축산시설(개소)	12	559	학교(개소)	4	669
산림시설(개소)	1	9	상하수도(개소)	48	280
기타(개소)	3710	6483	기타(개소)	31	33,479



총 2,832ha 손실 (축구장 3,681개)
 ◦ 국유림(11%) 328ha
 ◦ 사유림(89%) 2,504ha (1ha=3,025평)





셀럽(136명-33억)



NO	입금인	입금액	소속사
1	김병지	10,000,000	(사)김병지소프트문화진흥원
2	정기석(사이먼도미닉 썬디)	30,000,000	AOMG
3	로코	15,000,000	AOMG
4	박보영	100,000,000	BH엔터테인먼트
5	한효주	20,000,000	BH엔터테인먼트
6	김고은	20,000,000	BH엔터테인먼트
7	안소희(소희)	10,000,000	BH엔터테인먼트
8	유지태	10,000,000	BH엔터테인먼트
9	김소현(배우)	10,000,000	E&T Story 엔터테인먼트
10	유재석	50,000,000	FNC엔터테인먼트
11	정해인	30,000,000	FNC엔터테인먼트
12	씨엔블루 정용화	20,000,000	FNC엔터테인먼트
13	씨엔블루 강민혁	10,000,000	FNC엔터테인먼트
14	씨엔블루이정신	10,000,000	FNC엔터테인먼트
15	조우종 정다운	20,000,000	FNC엔터테인먼트
16	박나래	20,000,000	JDB엔터테인먼트
17	장성규	10,000,000	JTBC콘텐츠허브
18	황찬성(2PM)	100,000,000	jyp엔터테인먼트
19	장우영(2PM우영)	50,000,000	jyp엔터테인먼트
20	박지효(트와이스지효)	10,000,000	jyp엔터테인먼트
21	CHOUTZUYU(쯔위 jyp)	10,000,000	jyp엔터테인먼트
22	황재균	10,000,000	KT WIZ
23	코요태	15,000,000	KYT엔터테인먼트
24	현화이글스정근우	20,000,000	LG트윈스
25	워너원 윤지성	10,000,000	LM엔터테인먼트
26	김찬미(가수 정하)	10,000,000	MNH엔터테인먼트
27	SF모델현민	10,000,000	SF엔터테인먼트
28	강호동	50,000,000	SM C&C
29	정준호 이하정	50,000,000	STX라이온하트
30	차인표, 신애라	100,000,000	TKC PICTURES
31	김성균	10,000,000	UL엔터테인먼트
32	김태평(현빈)	30,000,000	VAST엔터테인먼트
33	이성경	50,000,000	YG엔터테인먼트
34	남주혁(술)	30,000,000	YG엔터테인먼트
35	김제니(블랙핑크 제니)	10,000,000	YG엔터테인먼트
36	박재영(블랙핑크 로제)	10,000,000	YG엔터테인먼트
37	김지수(블랙핑크 지수)	10,000,000	YG엔터테인먼트
38	리사(블랙핑크 리사)	10,000,000	YG엔터테인먼트
39	박산다라	10,000,000	YG엔터테인먼트
40	IKON 김진환	10,000,000	YG엔터테인먼트
41	IKON 장찬우	10,000,000	YG엔터테인먼트
42	엑스키스	10,000,000	YG엔터테인먼트
43	워너 김진우	10,000,000	YG엔터테인먼트
44	박명수	30,000,000	김채안팀
45	조승우	10,000,000	굿맨스토리

2020년 강원산불

규모, 장소, 속도 등 예측이 불가능하고
매년 발생하는 강원산불 주목

관련 보도자료

입력 2020.05.02 06:56 | 수정 2020.05.02 07:52

지상 진화인력도 5000여명 투입해 중...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불...
장에 투입돼 본격적으로 진화여...

강원 고성 산불 강... 확산...주민 30명 대피 직원 소집령
#리얼11200 09:01 2012

산림청, 산불 재난 '심각' 매년 대형 산불... 단계 발령

소행당국, 9시 반 대응 2단계 발령

...0.15ha 태우고 진화

강원도 고성 등 대형산불 피해 복구...억 투입

Copyright © 2020.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캠페인 필요성1

2019년보다 감소했으나 생각보다 큰 규모의 피해

전국 산불 발생건수, 피해규모



Copyright © 2020.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캠페인 필요성2

재난 관리 사이클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

발생건수, 피해규모



캠페인 필요성3

국민, 셀럽, 기업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

[공식입장] 강호동, 강원도 산불피해복구에 5천만원 기부

신한금융·피해복구 성금 2억·희망·계열사별 금품 지원 [강원산불]
 경향신문 2019.04.05. 네이버뉴스

신한금융그룹은 5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일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 피해복구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강원 속초, 고성, 울진 지역 이재민 구호활동 및 피해 복구 지원에 쓰인다. 계열사별 지원도...

두산, 강원도 산불 지원 나섰다...전국 재해구호협회에 2억원 기부
 매일일보 2019.04.10.

두산그룹은 10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의 피해 복구를 돕고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2억원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두산 관계자는 "갑작스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골식 | 김재중, 산불로 고생하는 소방관에 1천만 원 '의명 기부'...재단 측 '이...
 노포츠조선 2020.05.13. 네이버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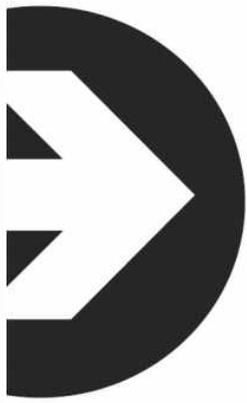
김재중은 지난 2018년 폭우 피해를 본 일본 히로시마를 직접 찾아 자원봉사에 참여했고, 지난해 발생한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고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재중은 지난...

[NIA슈] 싸이 아이유 1억 쾌척→류브 엔터까지...강원 산불에 온정(중환)
 뉴스1 2019.04.06. 네이버뉴스

이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싸이는 강원도 산불로 아픔을 겪은 주민들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협회 측은 "싸이가 이번뿐 아니라 대구 서문 시장 화재, 포항 지진 등이 있을때도 기탁금을 낸 바..."

캠페인 필요성4

단순한 사회공헌(CSR)을 넘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공유가치창출(CSV)과 공익연계마케팅 구현



구분	CSR	CSV
이념	사회적으로 선한 행동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
핵심 개념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기업, 지속 가능성, 사회공헌	기업과 지역공동체의 상생 가치 창출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이익창출과는 무관한 시혜적 활동(비용으로 인식)	이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로 인식
사회공헌 활동 선정과정	환경규제 등 외부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설정	기업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설정

1. CSV Trend New Leader

- ☞ **지역사회를 돕고 환경보전을 선도하여 두마리 토끼를 잡음**

2. 협회 신뢰관계 형성

- ☞ **가장 어려운 재난현장을 돕고 예방에 힘쓰는 유일한 기관**

3. 사회적 문제 해결

- ☞ **매년 발생하는 산불이슈에 대한 사회, 경제적 문제 지원**

15



CONTENTS

01 캠페인 배경 및 필요성

02 사업 집행계획 소개

- 캠페인 소개
- 캠페인 참여 및 혜택



희망 Forest 캠페인 소개



희망 Forest 캠페인 소개

개요	내용
캠페인 명	2021 강원도 산림보건 및 재생 캠페인 '희망 Forest'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년 발생하는 강원도 지역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을 조성함으로써,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자 함. 2. 10월 국제 재해감소의 날을 맞이하여 재난·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림보호에 앞장서고자 함.
기간	2021년 하반기 (식목행사 10월 13일 주간: 국제재해감소의 날(UN국제기념일))
주최·주관	강원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지원 대상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후원 금액	30,000,000원(1ha = 10,000m ² 기준, 60cm 소나무 1,500그루 식재)
기대 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림보건을 진행함으로써 산불피해 지역 회복의 성공적인 토대 마련 2. 후원자 이름으로 숲을 조성함으로써 산림보호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1ha = 축구장 1.3개



강원 산불로 후원해진 셀럽 130여명을 대상으로 참여가능한 셀럽 및 팬클럽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70여개의 기업 및 임직원도 참여하여 산불 피해 복구와 재건에 동참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정치인, 공공기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도 참석자를 모집하여 누구나 식목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ha = 10,000m² (3,025평 기준, 축구장 1.3개)

60cm 소나무 1,500그루 식재



● 식목사업 프로세스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식목사업	기존 피해 숲 벌목작업	15,000,000원	벌목, 토양개선, 평탄화등
	소나무 식재 7,500원 x 1,500그루	11,250,000원	60cm 소나무 기준 각대, 관리 포함
	현판 및 모니터링비	750,000원	후원자 네이밍 현판제작, 기타 행사비
운영비	사업관리 및 공통운영비	3,000,000원	전체 금액의 5~10%
	합계	30,000,000원	

25

맑은 공기를 위해 후원해 주세요. (후원자님 숲을 만들어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나무를 심는 당신이
진정한 셀럽입니다.



1.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차단
2. 미세먼지 해결
3. 산사태 방지 등



“희망 Forest에 참여하시면 마스크 없는 세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26

당신의 나눔은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희망브리지**
전국대학구조합회

종합토론 5

■ [좌장] 오재호 대표(나노웨더)

■ [토론] 발표자 4명 외

김정희 사무총장(전국재해구호협회), 김경남 선임연구위원(강원연구원),

백민호 교수(강원대학교), 라정일 부소장(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